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LEEUNGNO MUSEUM

이응노와
프랑스 제자들

Lee Ungno Et
Ses Disciples
Français

이응노미술관
이응노 탄생
120주년 기획전



이응노와
프랑스 제자들

Lee Ungno Et
Ses Disciples
Français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인사말
Message
de
Bienvenue

박인경, 이응노미술관 명예관장
Park In-kyung,
Directrice honoraire du
Musée Lee Ungno

머리말
Avant-
Propos

이응세
Lee Young-sé

발간사
Message
du
Directeur

이갑재, 이응노미술관장
Lee Kabjae Directeur du
Musée Lee Ungno

묵기,
먹의 정신

MOUK-KI,
L'esprit de
l'encre

도판
Oeuvres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
미술학교’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ref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크리스틴 다바다-파브르게트
Christine Dabadie-Fabreguettes

크리스틴 다바다-파브르게트 Christine Dabadie-Fabreguettes
클레르 키토 Claire Kito
엘리자베스 뷔르겐 Élisabeth Burgun
플로랑스 슈로빌트겐 Florence Schrobiltgen
프랑수아즈 조르주 플로토 Françoise George Ploteau
이네스 이겔닉 Inès Igelnick
장 비유후 Jean Villeroix
노엘 사메 Noëlle Samé
페랭 & 페랭 (마르틴 & 제키) Perrin & Perrin (Martine & Jack)
시빌 프리델 Sybille Friedel
비르지니 카다르 트라바델 Virginie Cadart Travadel
이응노 Lee Ungno
박인경 Park In-kyung
이응세 Lee Young-sé

김상호, 이응노미술관 학예팀장
Kim Sangho, conservateur du
Musée Lee Ungno



Message de Bienvenue

인사말

이응노미술관 명예관장 박인경
Park In-kyung,
Directrice honoraire du
Musée Lee Ungno

인사말 Message de Bienvenue

8

Goam nous a quittés. Il vit cependant encore dans nos cœurs. Après sa disparition, où en est notre art? Jusqu'à présent, il nous a été facile de constater que la peinture à l'huile repose sur la surface du papier, tandis que l'encre pénètre le papier et envahit le dos de la feuille. Que pouvons-nous déduire de cette différence et quel résultat peut-elle produire?

Peut-être nous faut-il maintenant attendre l'avis d'un tiers sur ce qui est visible et ce qui ne l'est pas. Tout résultat comporte trois aspects(le passé, le présent et le futur?). Pour nous, aujourd'hui, le futur semble être la meilleure des réponses.

Le 25 juillet 2024, À Paris

고암 顧庵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속에는 뚜렷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藝術은 어디까지 왔느냐고요? 그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油畵는 바탕에서 紙上으로 墨畵는 紙下에 스며듭니다. 그 사용법 자체, 결과의 목적은 무엇 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인 것이 동반하고 있는 것을 제3자의 의견을 기다릴 수 있겠지요. 모든 결과는 3자(과거, 오늘, 미래?), 오늘의 우리들은 미래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25일, 파리에서

Avant-Propos

이응세
Lee Young-sé

머리말

9

머리말 Avant-Propos

이응노 가족이 프랑스에 온 것은 1959년. '앵포르멜 informal' 운동이 파리 미술계를 풍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응노는 서구 예술의 모든 형식을 발견했습니다. '아르 브뤼 Art brut' 미술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김규진, 마츠바야시 게이게츠 같은 대가들에게 전통 동양화를 사사받은 이응노는 신문지를 구겨 붙이는 식의 새로운 재료의 사용을 통해 또 다른 언어를 찾았습니다.

파케티 화랑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육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4년이 되어서야 바뎀 엘리세프의 적극적인 권유로 비로소 파리동양미술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뒤이어 <1971년 작품과 연구 Oeuvres et Etudes en 1971>라는 제목으로 첫 전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맞아들이면서 모든 유파에 문을 활짝 열었고, 이렇게 해서 이응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회화 양식을 향한 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보 쉬르 센에서

Les 3 Lee arrivent en France en 1959. Le Mouvement "Informel" domine la scène artistique Parisienne. Ungno Lee découvre l'Art occidental sous toutes ses formes. *l'Art brut* est une découverte. Formé à la peinture extrême Orientale classique auprès de grands maîtres tels que Kim Kyujin et Matsbayashi Keigetsu, Ungno Lee trouve un nouveau langage par l'utilisation de nouveaux matériaux, tels que les papiers journaux, froissés et collés.

Les exposition se succèdent, notamment à la galerie Facchetti. L'enseignement n'est toujours par à l'ordre du jour. Ce n'est que plus tard, sous l'impulsion de Vadime Ellisseff, que l'Académie voit le jour en 1964. Suit la toute première exposition "Oeuvres et Etudes" en 1971. Ouvrent à tous les courants artistiques recevant des élèves venus, de tous les horizons, Ungno Lee a ouvert la voie vers une nouvelle façon de peindre, mêlant tradition et modernité.

25. 7. 2024, à Vaux-sur-Seine

발간사

이응노미술관장
이갑재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10

2024년은 이응노 화백 탄생 120주년이 되는 해이자, 파리동양미술학교가 설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응노미술관은 이 뜻깊은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전시 <푸른 눈의 수목 - 이응노와 프랑스 제자들>을 개최합니다.

1964년 이응노 화백은 파리 세르누쉬 미술관에서 동양화 강좌를 개설해 프랑스인들에게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교육자로서의 활동은 예술가로서의 활동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업적을 기려 이응노미술관은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이응노와 박인경을 사사한 프랑스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 <푸른 눈의 수목>을 기획했습니다.

참여작가들은 모두 파리동양미술학교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스승 이응노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작가들로 현재 예술가,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응노미술관에서 이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자 11인의 예술을 통해 우리는 이응노 화백이 오래전 프랑스에 뿌린 예술적 씨앗이 오늘날에도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일찍이 미술교육을 통해 동·서미술의 융합과 평화를 꾀했던 이응노 화백의 큰 정신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전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인경 명예관장님, 이용세 화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하신 프랑스 작가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ee Kabjae
Directeur du
Musée
Lee Ungno

Message du Directeur

11

발간사 Message du Directeur

L'année 2024 marque le 120^e anniversaire de la naissance de Lee Ungno et les 60 ans de la fondation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Pour commémorer cette période significative dans la vie de l'artiste, le Musée Lee Ungno organise l'exposition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 Lee Ungno et ses disciples français*.

En 1964, Lee Ungno a ouvert un cours de peinture orientale au Musée Cernuschi à Paris, enseignant ainsi aux Français la beauté de l'art coréen. Le maître a toujours considéré son rôle d'éducateur comme étant aussi essentiel que son travail d'artiste. En hommage à ces contributions, le Musée Lee Ungno a invité, pour cette exposition, des artistes français formés par Lee Ungno et Park In-kyung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Les artistes participants sont l'incarnation vivante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et de son histoire. Ils perpétuent l'enseignement de Lee Ungno tout en exerçant activement leur métier d'artistes et d'éducateurs. C'est la première fois que le Musée Lee Ungno expose leurs œuvres. À travers l'art de ces onze disciples, nous constatons que les graines artistiques semées par Lee Ungno en France continuent de porter leurs fruits aujourd'hui. À une époque où la culture coréenne est sur le devant de la scène mondiale grâce à la *Hallyu* ("vague coréenne"), il est important de se rappeler la vision de Lee Ungno, qui, par l'enseignement artistique, a cherché à unifier les arts de l'Orient et de l'Occident et à promouvoir la paix.

Je tiens à exprimer ma sincère gratitude à Mme Park In-kyung, directrice honoraire, et au peintre Lee Young-sé pour sa précieuse collaboration, ainsi qu'aux 11 artistes français participants.

묵기, 먹의 정신

본 전시는 1964년 이응노 선생이 세르누쉬 미술관의 바뉘 엘리세프 후원 하에 해당 미술관 내에 설립한 파리동양미술학교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로, 지난 60년간 동아시아와 서구의 각별한 교류에서 비롯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말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이응노 선생은 자국에서 이미 전통 서화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동시에 한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주요 작가 중 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에 새로움을 불어넣고자 하는 이 같은 그의 탐구는 서구의 현대미술과 조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형태보다 몸짓과 마티에르, 우발적 행위가 주조를 이루는 앵포르멜 미술이 한창 꽃피어나던 시절, 선생은 자신의 작품 속에 서정 추상의 회화 언어를 확립하고, 동시대 예술을 지향하는 가운데서도 서예 전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파리동양미술학교의 작업실은 흰색의 멜턴 천 위에 올려놓은 새하얀 한지처럼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버루에 먹을 가는 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선생의 음성 외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선생은 학생의 손을 잡고 직접 선의 흐름을 느끼도록 했고, 서화가처럼 붓을 곧게 쥔 제자는 그 몸짓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획을 긋는 행위는 단순히 형태를 본뜨는 것과는 달리 선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정확한 몸짓을 익히는 행위로, 기본 획 긋기를 오랫동안 배운 뒤에는 흑백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글자를 쓰기 위해 공간 속에 획을 배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획과 여백을 다루는 것이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대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서체를 연구하며 저마다 개인 작업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서예 학습과 병행하여 이응노 선생은 서예의 획과 동일한 동양화의 선을 통해 자연의 요소들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주제를 중심으로 아틀리에에서 시작된 이 같은 연구는 야외 연수 동안에도 이어졌습니다.



푸른 눈의 수목 L'encore De Chine Aux Yeux Bleus

12

이때 선생은 풍경의 다양한 요소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구성분 아니라 여러 요소에 형태를 부여하는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존재와 사물이 놀라우리만큼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곤 했습니다.

서예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선생은 우리에게 한지라는 공간에 작품을 구성하고 대상을 배치하면서 저마다 선택한 주제에서 경이로운 존재감이 솟아나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선생은 각자가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보다는 작품이 언제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의 작품과 가르침의 바탕에는 늘 자연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서예 추상의 방식을 통해 표현을 단순화하여 본질을 잃지 않게 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그 속에 깊이 젖어들면서 그것이 제공하는 경이로움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응노 선생에게 삶과 예술은 동의어였습니다. 그에게 예술 창작은 세계를 경험하고 관조하며 이해하는 방식이자 삶의 움직임과 한몸이 되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은 예술 행위의 일부였습니다. 선생에게 전수는 자신이 물려받은 전통을 다른 이들에게 맡김으로써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선생은 그 과정을 함께 나누었고, 모든 경험을 전달해주셨으며, 우리의 발견에서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이응노 선생이 작고하신 이후에는 박인경 여사와 아들 이용세 화백이 계속해서 선생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그들 자신의 예술 경험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과정에서 묵기 그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고, 다양한 재료와 인물들을 통해 먹의 정신에서 동, 서양 문화의 만남에서 비롯된 결실이라 일컬을 만한 새로운 작품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만남의 결실 중 일부 작품을 선생의 모국에서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묵기 그룹전의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갑재 이응노미술관 관장님과 김상호 학예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

묵기, 먹의 정신 MOUKKI, L'esprit de l'encre

MOUK-KI, L'es

Christine Dabadie-Fabreguettes

Cette exposition rassemble les œuvres d'artistes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fondée par Ungno Lee en 1964, au Musée Cernuschi, sous l'égide de son conservateur Vadime Elisseeff. Elle est le fruit de soixante années d'un échange très particulier entre Extrême-Orient et Occident.

Quand Ungno Lee arrive à Paris à la fin des années cinquante, il est un Maître reconnu dans la tradition calligraphique et picturale de son pays, en même temps qu'un des artisans de la modernité coréenne. C'est cette quête de renouvellement de la tradition extrême-orientale qui l'amène à se confronter à la modernité occidentale.

En plein épanouissement de l'art informel marqué par la prédominance du geste, de la matière, de l'accident, sur la forme, il va dans le même temps assimiler les langages picturaux de l'abstraction lyrique dans des créations très personnelles et transmettre les fondements de la tradition calligraphique dans un esprit d'ouverture à la création contemporaine.

L'atelier, silence blanc, du papier blanc, léger, sur le molleton blanc, seul le murmure du bâton d'encre frotté sur la pierre à encre et parfois la voix du Maître *comme ça, comme ça* et sa main qui tient la main qui apprend pour lui faire sentir le cheminement du tracé, le pinceau bien droit, comme l'artiste, tout entier dans son geste. Tracer un trait ne consistait pas à en copier la forme, mais à intégrer le geste juste dont la trace produirait la forme. Long apprentissage des premiers traits, puis de leur organisation dans l'espace pour composer un caractère dans un juste rapport des noirs et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14

prit de l'encre

des blancs. Apprivoiser le trait, apprivoiser l'espace, pour ensuite en jouer librement. L'étude des différents styles de calligraphie à travers les œuvres des grands Maîtres permettait ensuite à chacun d'approfondir sa recherche personnelle.

En parallèle à l'apprentissage de la calligraphie, Ungno Lee proposait l'étude des éléments de la nature tracés avec la même qualité de trait que la calligraphie. Commencée à l'atelier à partir de sujets simples, cette étude se poursuivait au cours des stages en pleine nature.

Là, il nous apprendait d'abord à voir les éléments du paysage simplement tels qu'ils nous apparaissaient, à comprendre leur organisation, le cheminement de l'énergie qui leur donne forme. Au bout de quelques jours, les êtres et les choses nous sautaient aux yeux avec une incroyable force.

Comme pour la calligraphie il nous montrait comment composer l'œuvre dans l'espace de la feuille, comment l'organiser pour faire émerger l'émotion, la merveilleuse présence du sujet choisi. Ungno Lee montrait, il ne montrait pas le résultat, éminemment personnel à chacun, mais il montrait la voie à suivre pour que l'œuvre advienne, toujours nouvelle.

Cette référence permanente à la nature nourrissait son œuvre personnelle comme son enseignement. Il nous invitait à emprunter la démarche de l'abstraction calligraphique, comment simplifier pour garder l'essentiel, observer, comprendre, s'imprégner de la nature vivante pour donner forme à l'émerveillement qu'elle nous procure.

conservateur Vadime Elisseeff Pour Ungno Lee l'art et la vie étaient une seule et même réalité. La création artistique était pour lui une façon de vivre, de regarder et de comprendre le monde, de se couler dans le mouvement de la vie; l'enseignement était donc partie intégrante de l'acte artistique. Transmettre, c'était pour lui confier à d'autres la tradition reçue pour qu'elle continue à vivre et à porter des fruits nouveaux. Il partageait sa démarche, il donnait tout de son expérience et trouvait sa joie dans les découvertes qu'elle suscitait chez nous.

Après le décès d'Ungno Lee, In-kyung Park, son épouse et Young-sé Lee, son fils, ont continué à transmettre son enseignement et à partager leur propre expérience artistique. C'est dans cette même démarche qu'ils ont suscité la création du groupe Mouk-ki, afin de montrer comment, à travers la diversité des matériaux et des personnalités, l'esprit de l'encre, engendre des créations nouvelles, fruits de la rencontre entre nos deux cultures.

Heureux de ramener au pays du Maître quelques uns des fruits de cette rencontre, nous remercions le Musée Ungno Lee, son Directeur, Monsieur Lee Kabjae et Monsieur Kim Sangho, Conservateur, d'accueillir cette exposition du groupe Mouk-ki.

15

묵기, 먹의 정신 MOUK-KI, L'esprit de l'encre



- ❶ 크리스틴 다바디-파브르케트
Christine Dabadie-Fabreguettes
- ❷ 클레흐 키토
Claire Kito
- ❸ 엘리자베스 뷔르겐
Élisabeth Burgun
- ❹ 플로랑스 슈로빌트겐
Florence Schrobiltgen
- ❺ 프랑수아즈
조르주 플로토
Françoise George Ploteau
- ❻ 이네스 이겔너
Inès Igelnick
- ❼ 장 비유후
Jean Villeroix
- ❽ 노엘 사메
Noëlle Samé

- ❾ 페렐 & 페렐 (마르틴 & 잭)
Perrin & Perrin (Martine & Jack)
- ❿ 시빌 프리델
Sybille Friedel
- ⓫ 비르지니 카다르 트라바델
Virginie Cadart Travadel
- ⓬ 이응노
Lee Ungno
- ⓭ 박인경
Park In-kyung
- ⓮ 이응세
Lee Young-sé

Oeuvres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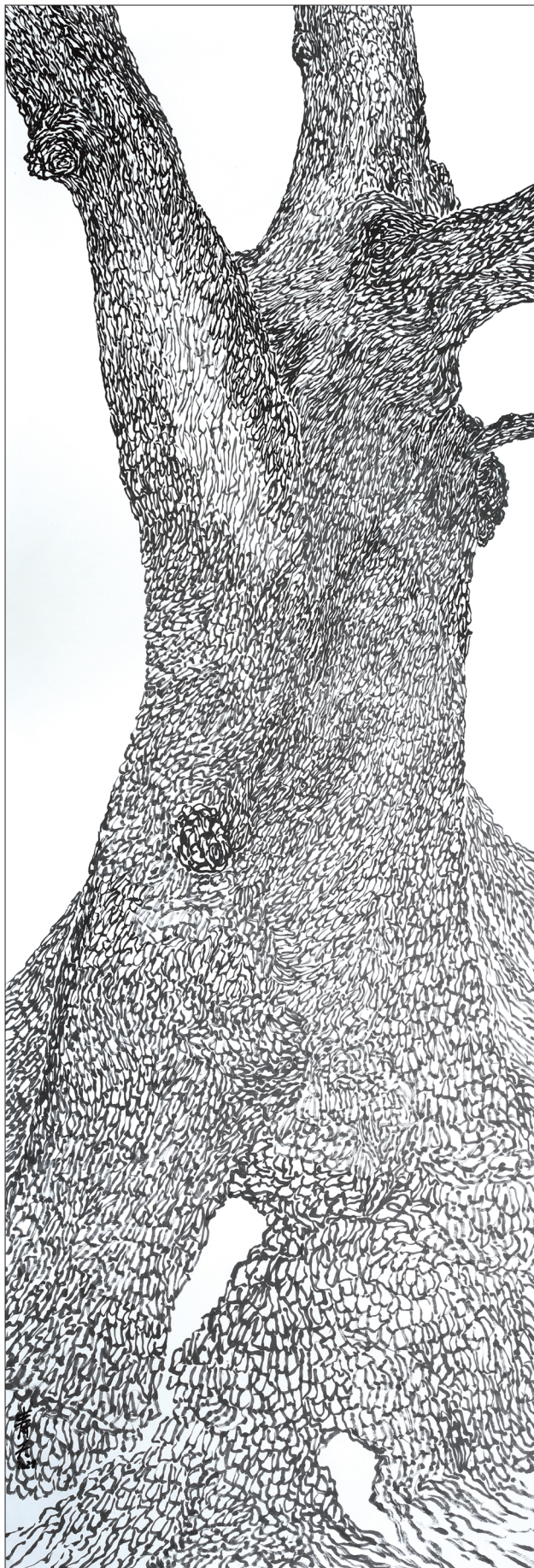
작가는 1971년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이응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에서 돋보이는 것은 거대한 고목을 그린 작품이다. 샤먼, 우리의 위대한 조상인 나무는 신비로운 생명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검은 하늘 너머 무한에 도달한다. 나무의 피부와 혈관에는 계절이 흐르고 있다. 수 세기 동안 항상 같고, 항상 변화하며, 느리고 영구적인 변이를 거듭한다. 비, 바람, 서리, 태양의 영향을 받으며 그 자리에 서있다. 수천 종의 생물이 서식하며, 숲 속 동물들의 재빠른 뽀글림과 손길의 애무, 지나가는 사람들의 희미한 목소리가 진동한다. 우주의 느린 리듬에 맞춰 회전하는 데르비쉬 수도승은 별을 모으고 바람을 노래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우리를 매료시키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인도한다. 그들과 함께 뽀은 시간을 가로지르며 생명의 위대한 숨결에 이끌린다.

Shamans, nos grands ancêtres les arbres, enracinés aux sources mystérieuses de la vie, tendus vers l’infini par-delà le ciel noir. Sur leur peau et dans leurs veines coulent les saisons. Depuis des siècles, toujours les mêmes, toujours changeant; Lente et permanente mutation. Ils se dressent, façonnés par la pluie, le vent, le gel et le soleil. Des milliers de vivants les habitent, en eux vibre le frôlement furtif des bêtes de la forêt, en eux frémissent la caresse des mains et les voix disparues des passants. Derviches tournant au rythme lent du cosmos, ils cueillent les étoiles et font chanter le vent. Ils nous conduisent, fascinés, étonnés, émerveillés, sur les voies de l’invisible. Avec eux le pinceau traverse le temps, emporté par le grand souffle de la vie.

- 2024 <갤러리 라 메종 드 브리앙>, 시미안느-라-호통드, 프랑스
- 2024 <동시대 서예>, 미디어피프, 카롱브, 프랑스
- 2023 <수묵화, 동시대 미술 페스티벌>, 세를자흐, 프랑스
- 2022 <샤먼>, 퓌 후오와 전시, 몽브뤼, 프랑스
- 2021 <두 개의 정원에서>, 시빌 프리델과 전시, 메종 데 자르 콩탕포랭, 아비뇽, 프랑스

- 2024 *Galerie La Maison de Brian*, Simiane-la-rotonde, France
- 2024 *Calligraphie contemporaine*, Médiathèque, Caromb, France
- 2023 *Peinture et Encre, Festival d'Art Contemporain*, Serreslez'Arts, France
- 2022 *Shamans*, avec les sculptures de Luc Rouault, Montbrun, France
- 2021 *A deux au jardin*, avec les sculptures de Sybille Friedel, Maison des Arts Contemporains, Avignon, France

Christine Dabadie- Fabrequeettes- 크리스틴 다바디- 파브르케트



샤먼 2 Shamans 2
2021, 205×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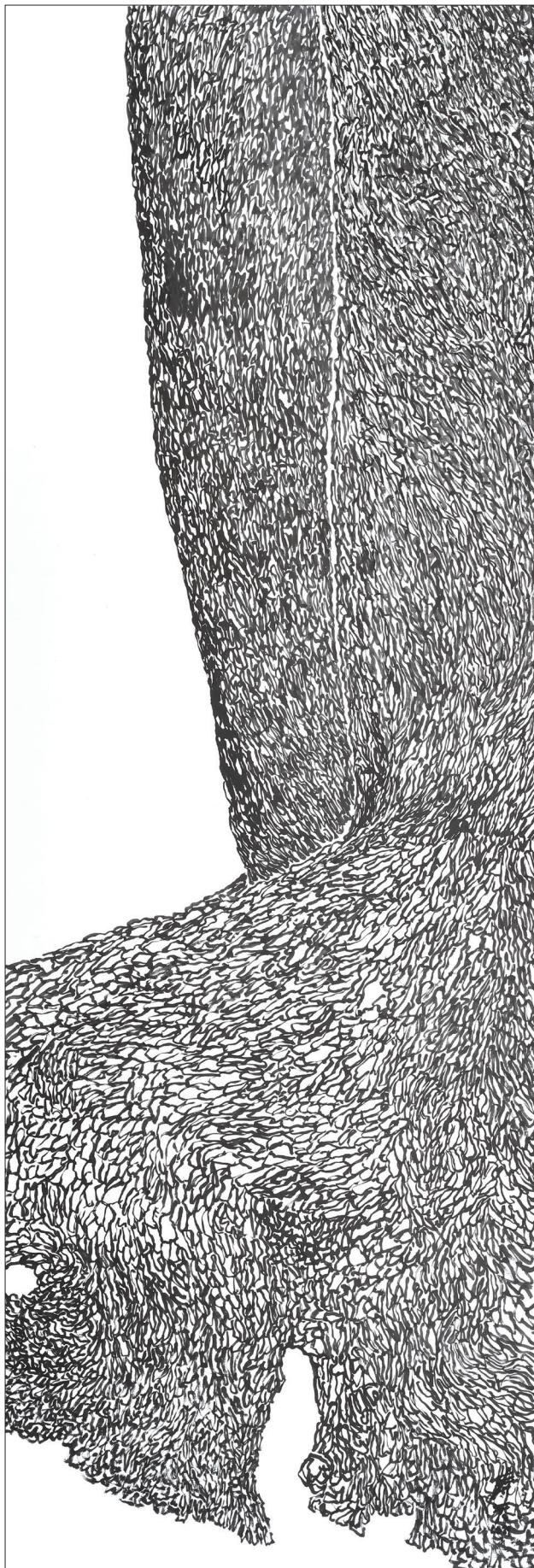
22



샤먼 14 Shamans 14
2021, 205×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크리스틴 다바디-파브레케트 Christine Dabadie-Fabrequeffes

23



샤먼 6 Shamans 6
2021, 205 × 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샤먼 11 Shamans 11
2021, 205 × 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크리스틴 다바디-파브레케트 Christine Dabadie-Fabrequeffes

Claire Kito

클레어 키토

키토는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그래픽 아티스트로 일했으며 1987년 이응노에게 서예와 수묵화를 배웠다. 이후 수묵 작품을 가지고 프랑스를 비롯해 해외 갤러리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개최했다. 키토의 작품에서는 두보를 비롯한 중국의 명시에 대한 관심, 한자의 형태를 활용한 역동적인 문양 등으로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 <먹의 산>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은 산처럼 쌓아 올린 문자 속에서 문자 특유의 형태와 유머스러운 형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자와 붓의 매력을 그대로 화폭 위에 담는 방식에서 스승 이응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Graphiste de formation, j’aime la lettre, le jeu des noirs et blancs, peintre, je rêve en couleur. La rencontre avec l’artiste Ungno Lee et l’enseignement dispensé au sein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m’ont ouvert d’autres chemins, modifiant mon approche de l’art, en même temps que la pratique de la calligraphie nourrissait mon travail pictural. Ce que dit un poème, ce que suggère un paysage, mon environnement dans la grande ville, dictent mon geste artistique, mon choix de la couleur ou du noir, le rythme, la musicalité des traits. Depuis les années 95, l’encre de Chine est devenue le médium privilégié, de même que le travail sur papier. La préoccupation du trait vivant et la recherche libre d’une écriture personnelle, restent le guide précieux laissé par la main de Maître Ungno Lee.

- 2023 <바스락거리는 글쓰기>, 미디어테크 장-피에르 멜빌, 파리
- 2020 <먹의 대화>, 미디어테크 세카노, 아비뇽 & 파리 8구청
- 2019 <서예의 자연적 정신>, 수묵비엔날레, 전라북도
- 2018 <시와 먹의 역사>, 폴 엘뤼아르 미술관, 생-드니, 프랑스
- 2016 <먹의 정신>, 목기 그룹전, 파리 8구청
- 2014 <꿈꾸는 자연, 제시된 자연>, 라 므뇌즈리, 호데즈, 프랑스

- 2023 *Bruissement d'écritures*, Médiathèque Jean-Pierre Melville, Paris
- 2020 *Ink dialogue/Dialogue d'encre*, Médiathèque Ceccano, Avignon et Mairie du 8ème Paris
- 2019 *The natural spirit of calligraphy*, Biennale mondiale de calligraphies, Jeollabuk-do, Korea
- 2018 *Histoires de poèmes et d'encres*, Musée Paul Eluard, Saint-Denis, France
- 2016 *L'esprit de l'encre*, groupe Moukki, Mairie du 8ème Paris
- 2014 *Nature rêvée, nature présente*, La Menuiserie, Rodez,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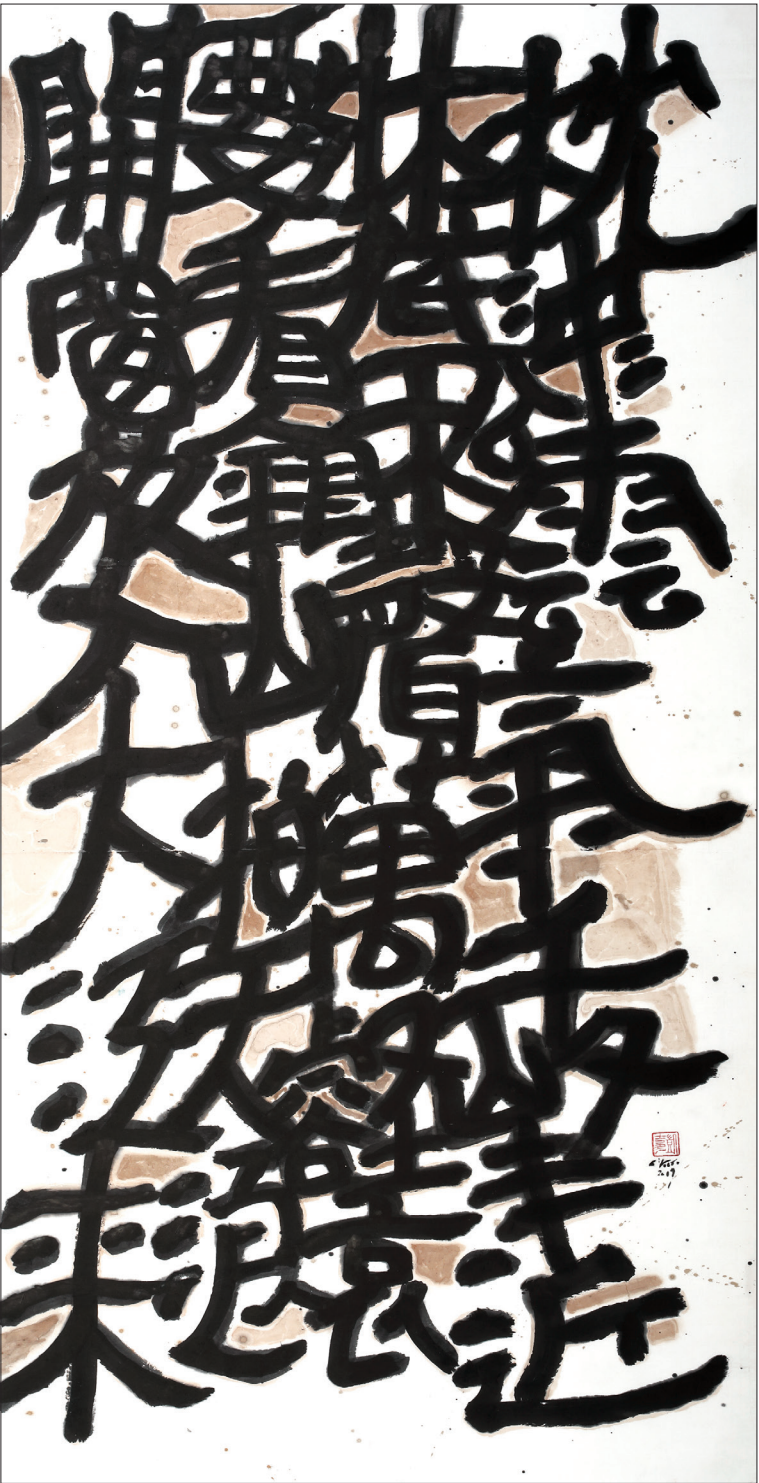
먹의 산 Mont d'encre
 2020, 134.5 × 35.5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 Claire Kito / ADAGP, Paris – SACK, Seoul, 2024



먹의 산 Mont d'encre
 2020, 135 × 70.5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 Claire Kito / ADAGP, Paris – SACK, Seoul, 2024



먹의 산 Mont d'encre
2020, 135×70.5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 Claire Kito / ADAGP, Paris – SACK, Seoul, 2024



비스트르 산 Mont Bistre
2019, 148.5×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 Claire Kito / ADAGP, Paris – SACK, Seoul, 2024

이응노 화백이 설립한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약 30년 동안 서예와 회화를 공부하면서 서예와 서양 회화를 창작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최대한 다졌다. 자연에 대한 정확한 관찰은 뷔르경 작업의 원천이다. 본질을 취하기 위해 많은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상단이나 하단에 불교 시를 사용해 화면을 구성하고 색을 칠한다. 그런 다음 입체와 여백을 다시 작업한다. 검은색을 강조하여 부조를 만들고 거리감을 나타낸다. 작가는 문자를 그리고 색을 칠하는데 이 둘은 밀접하게 얹혀 있다. 과거에는 추상에서 구상으로 자주 옮겨갔지만 뷔르경의 작품은 항상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전시했다.

La pratique de la calligraphie et de la peinture orientale pendant une trentaine d’années au sein de *l’Académie de Peinture et Calligraphie Orientale de Paris*, créée par Maître UngNo Lee, m’a donné les bases que j’ai adaptées autant que possible à la calligraphie et peinture occidentale. L’observation précise de la nature est la source de mon travail. Je m’appuie sur de nombreux croquis pour ne garder que l’essentiel. Je peins les éléments qui la composent à l’aide de poèmes bouddhistes Inscrits dans le haut ou le bas de la peinture pour plus de lisibilité. Ensuite, je retravaille les pleins et les vides. J’accentue les noirs pour créer les reliefs, marquer les distances. Je peins des mots, j’écris de la peinture. Les deux sont intimement mêlés. Auparavant, Je suis souvent passée de l’abstrait au figuratif, mais ma peinture a toujours été liée à la nature. Mes peintures ont été exposées en Europe et aux Etats-Unis.

2022 <육화된 선>, 재팬타운, 샌프란시스코

2022 해머프라이어 갤러리, 헬드버그, 캘리포니아

2020 <먹의 대화>, 메디아테크 세카노, 아비뇽 & 파리 8구청

2020 메디아테크 세카노 도서관, 아비뇽

2019 살롱 도통, 상젤리제, 파리

2022 *The embodied line*, Japantown, San Francisco

2022 Hammerfriar galerie, Healdsburg, Californie

2020 *Ink dialogue/Dialogue d’encre*, Médiathèque Ceccano, Avignon et Mairie du 8ème Paris

2020 Médiathèque Ceccano, Avignon France

2019 Salon d’automne, Champs Élysées, Paris

Élisabeth Burquin 엘리자베스 뷔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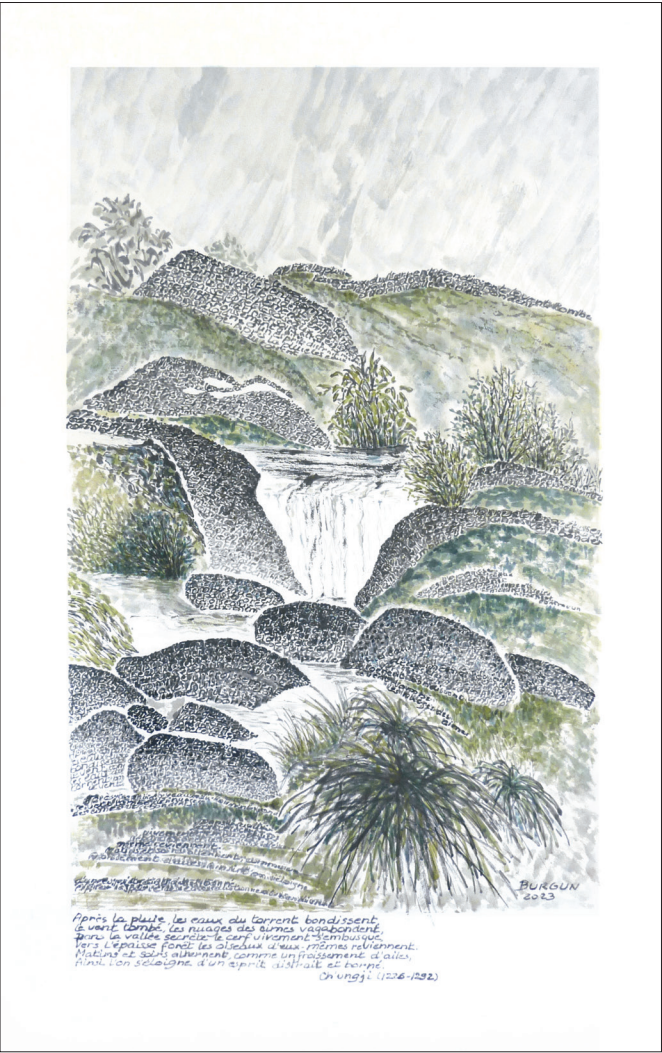
비 온 뒤 계곡물은 빠르게 흐르고
바람이 잔잔해지니 고개 위 구름 한가하구나.
골짜기가 뻥뻥하여 사슴이 깃들고
숲이 울창하여 새들이 절로 모여드네.
아침 저녁 금방 지나가는 속에
그저 허술하고 완고한 성품을 기르노라.

충지(1226-1292)

산은 나를 부르지 않고
나도 산을 모른다.
산과 내가 서로 잊을 때
비로소 별달리 한가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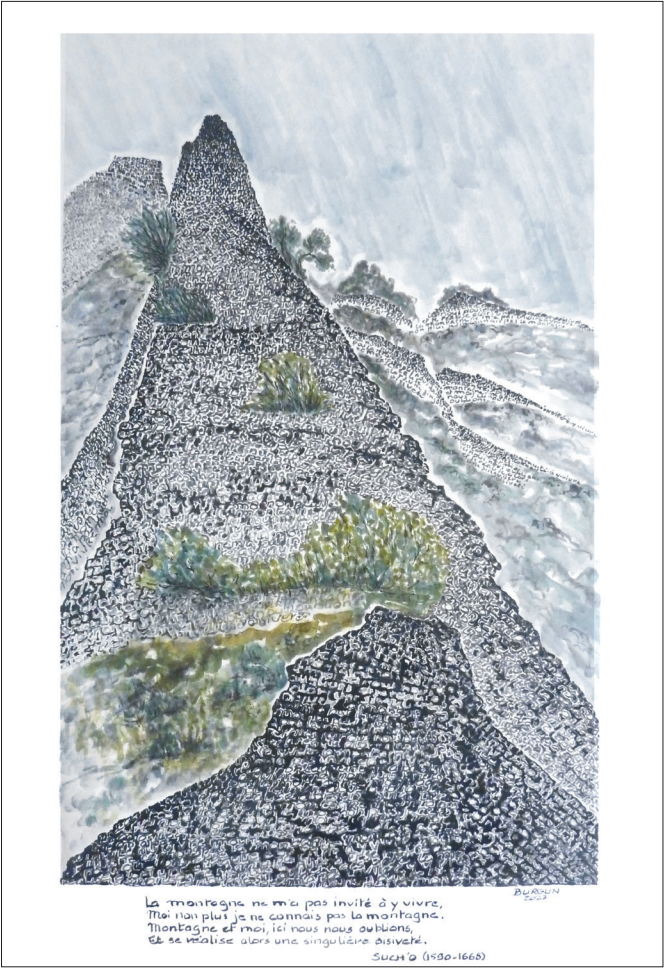
수초(1590-1668)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바위 N°7 Rochers N°7
2023, 75×46cm
종이에 수묵담채
Encre et couleurs sur papier

엘리자베스 뷔르경 Elisabeth Burgun



바위 N°6 Rochers N°6
2023, 75×46cm
종이에 수묵담채
Encre et couleurs sur papier



Comme un gros animal
marin, les rochers ronds
semblent se déplacer sur
la plage. Il suffit de dé-
tourner le regard un instant
et je les soupçonne de se
mouvoir discrètement.
Peut-être veulent-ils
changer d'endroit et petit
à petit gagnent-ils quelques
centimètres voire quelques
mètres. C'est un grand
mystère. Dès qu'on les
regarde, ils se figent.

BURGUN
2022

둥근 바위들이 마치 거대한 바다 동물처럼
해변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잠깐 눈길을 돌리기만 하면,
나는 그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의심한다.
어쩌면 그들은 그 자리에 정착하고 싶어 조금씩
몇 센티미터, 심지어 몇 미터씩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큰 미스터리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멈춘다.

바위 N°1 Rochers N°1
2022, 75 x 46 cm
종이에 수묵담채 Encre et couleurs sur papier

슈로빌트겐은 이응노 화백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붓의 움직임, 종이의 신비, 먹의 노래, 몸짓의 시를 배웠다. 과거의 기법을 통해 자연을 가장 단순하게 재현하고 제안하며 독창적인 예술적, 조형적 접근 방식을 드러낸다. 수묵을 통해 배운 주관적인 시각으로 예술과 개인적 감성을 표현한다. 수묵 매체의 우연성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큼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어떤 그림에서는 천에 패턴을 실험한다. 프린트하거나 스크린 인쇄된 천을 자르고, 찢고, 실을 당기고, 재구성하고, 한지에 직접 바느질하여 화려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재현한다. 작가는 먹, 실, 종이와 천을 혼합한다. 이 재료들은 서로 섞이며 시적인 우주를 함께 여행한다.

Initiée par le Maître coréen Lee Ungno, j’apprends le vol du pinceau, les mystères du papler, le chant de l’encre et la poésie du geste. Cette technique ancestrale me permet de retranscrire et suggérer la nature dans toute sa simplicité, de révéler ma propre démarche artistique et plastique. L’apprentissage de la vision subjective par le biais de l’encre me permet d’exprimer mon art et ma sensibilité personnelle. Le hasard de ce médium est source d’inspiration tout autant que la concentration qu’elle demande. Dans certains tableaux, j’expérimente le motif sur tissu. Je coupe, je déchire, je tire les fils, je réorganise mes tissus imprimés-sérigraphiés, recousus à même sur le papler oriental afin de recréer une ambiance colorée, de transparence. Je mélange l’encre et le fil, le papier et le tissu. Ils se rencontrent pour voyager ensemble dans un univers poétique universel.

- 2024 <갤러리 8의 눈>, 파리
- 2024 <갤러리 그리옹>, 파리
- 2023 <아키텐 예술가 살롱>, 갤러리 카로파흐, 마르망드, 프랑스
- 2022 <생-레미 문화공간>, 보르도, 프랑스
- 2016 <먹의 정신>, 목기 그룹전, 파리 8구청

- 2024 *Galerie L'oeil du 8*, Paris
- 2024 *Galerie Grillon*, Paris
- 2023 *Salon des Artistes Aquitains*, Galerie Garozart, Marmande, France
- 2022 *Espace Culturel St Rémi*, Bordeaux, France
- 2016 *L'esprit de l'encre*, groupe Moukki, Mairie du 8ème Paris

Florence Schrobiltgen

슈로빌트겐 이응노 화백에게

포옹 Embrassement
2023, 15.5×15.5cm
종이와 실에 먹 Encre sur papier, fil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40

41

플로랑스 슈로벨트겐 Florence Schrobiltgen



연꽃 두 송이 Les deux Lotus
2021, 20×20cm
실크스크린, 실,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sérigraphie, fil

장미 연꽃 Lotus Rose
 2021, 21.5×19cm
 실크스크린, 실,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sérigraphie, fil



푸른 눈의 수목 L'encore De Chine Aux Yeux Bleus

42

43

플로랑스 슈로벨트겐 Florence Schrobilgen



제비 L'hirondelle
 2021, 22×22cm
 종이에 수묵채색, 혼합재료
 Encre sur papier, sérigraphie et techniques mixtes

걸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도중에 마주친 풍경의 독특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걷는 리듬을 통해 관찰하고 명상하며 풍경에 몰입하고 꽃의 섬세함, 나무나 바위의 강인함, 산의 힘을 느끼며 삶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예와 동양화를 공부하면서 이 모든 경험을 표현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고대와 현대 예술 작품 복원을 위한 파리의 공방에서 예술적 훈련을 받았다. 1993년 파리 ADAC에서 클레흐 키토와 함께 동양의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1997년에 한국의 거장 이응노와 박인경이 설립한 파리동양미술학교에 합류했다.

J’ai parcouru à pied de nombreuses régions du monde et me suis nourrie des beautés insolites et variées des paysages traversés. Le rythme de la marche permet d’observer, de méditer, il donne le temps de s’imprégner d’un paysage, de sentir la délicatesse d’une fleur, la force d’un arbre ou d’un rocher, la puissance de la montagne; J’y pulse mon énergie de vie. Ma peinture est le reflet des émotions ressenties face à cette nature dont j’ai pleinement conscience de faire partie. L’étude de la calligraphie et de la peinture orientale m’a permis de trouver le chemin pour exprimer et mettre en forme tous ces vécus. Formation artistique dans un atelier parisien de restauration d’œuvres d’art anciennes et contemporaines. En 1993, Je débute l’enseignement de la calligraphie chinoise à l’Adac à Paris avec Claire Kito et Je rejoins en 1997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fondée par les maîtres coréens Ungno Lee et In-kyung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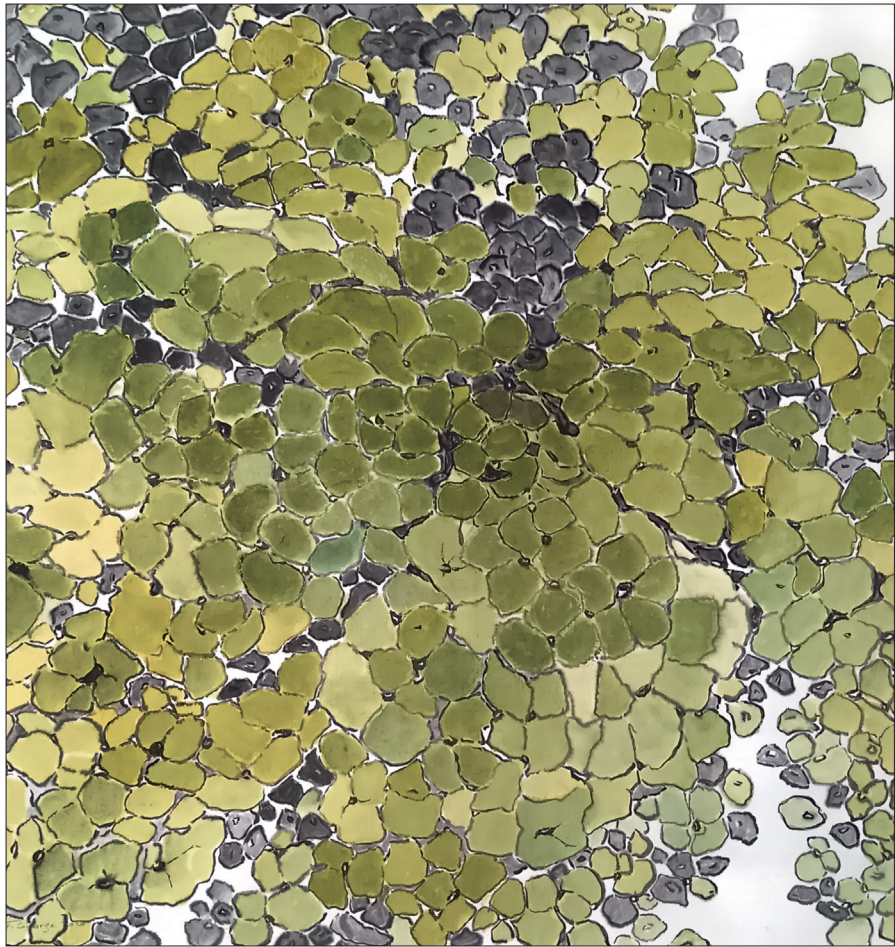
- 2021 <바위, 나무 강>, 페뤼스 르 록 아베이롱, 프랑스
- 2017 <나의 종이 오두막>, 에스빠스 60 ADaDa 생-드니
- 2016 <예술과 공예, 변형>, 르 베프루아 아 몽루즈
- 2016 <자연을 읽어라-아르데슈 여행>, 이응노 아틀리에, 보쉬르센, 프랑스
- 2012 <자연을 읽어라-바다>, 세브르 센터, 파리

- 2021 *Rocs, arbres et rivière*, Peyrusse le Roc Aveyron
- 2017 *Ma Cabane de Papier*, exposition de Claire Kito, Espace 60 ADaDa Saint-Denis
- 2016 *Art et Artisanat-les métamorphoses*, Le Beffroi à Montrouge
- 2016 *Lire la nature-voyage en Ardèche*, Atelier Ungno Lee Vaux sur Seine
- 2012 *Lire la nature-la mer*, Centre Sèvres Paris

Françoise George Ploteau

프랑스어 아트

조각주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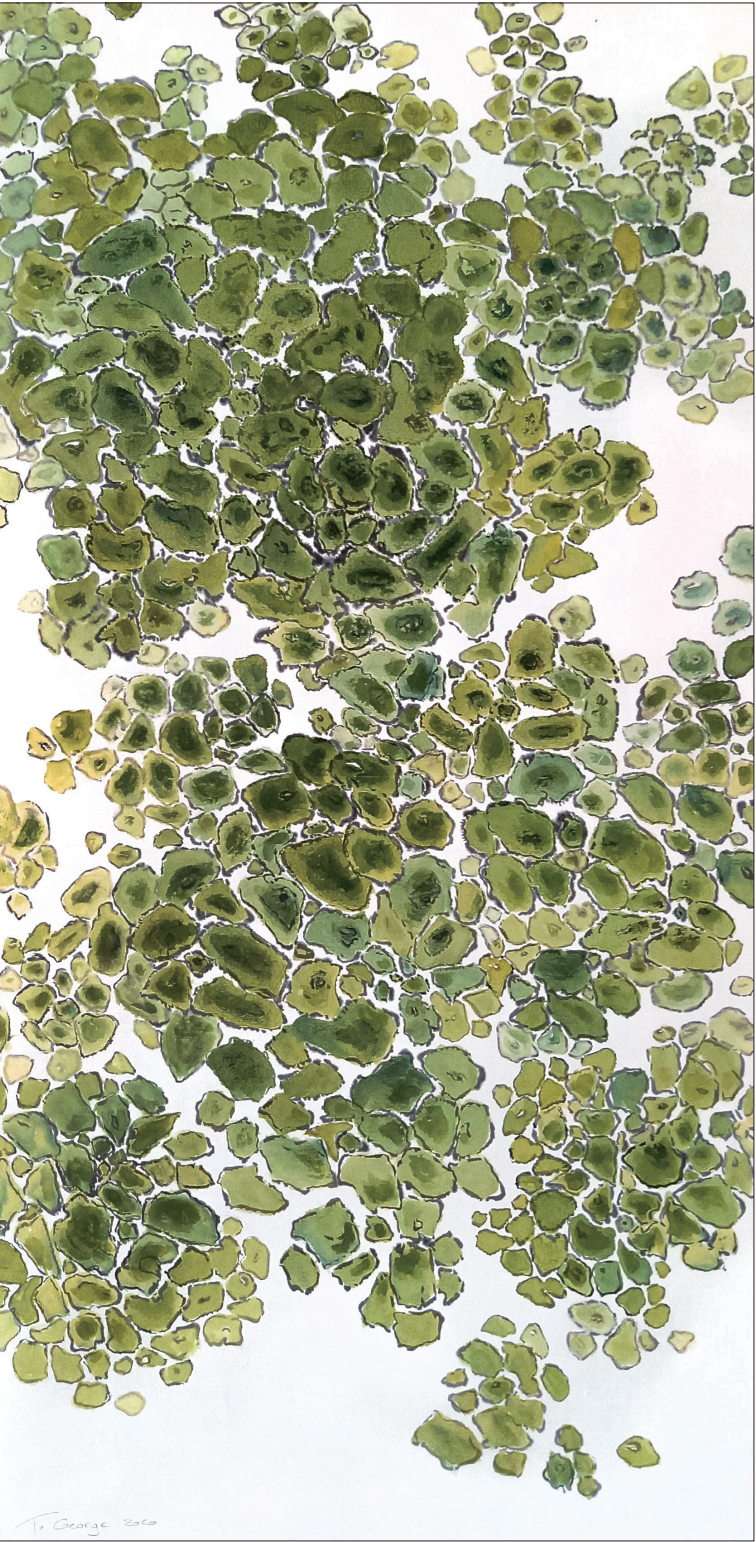


이끼 꽃 II Fleur de Linchen II
2020, 50×50cm
종이에 수묵채색 Encre et couleurs sur pap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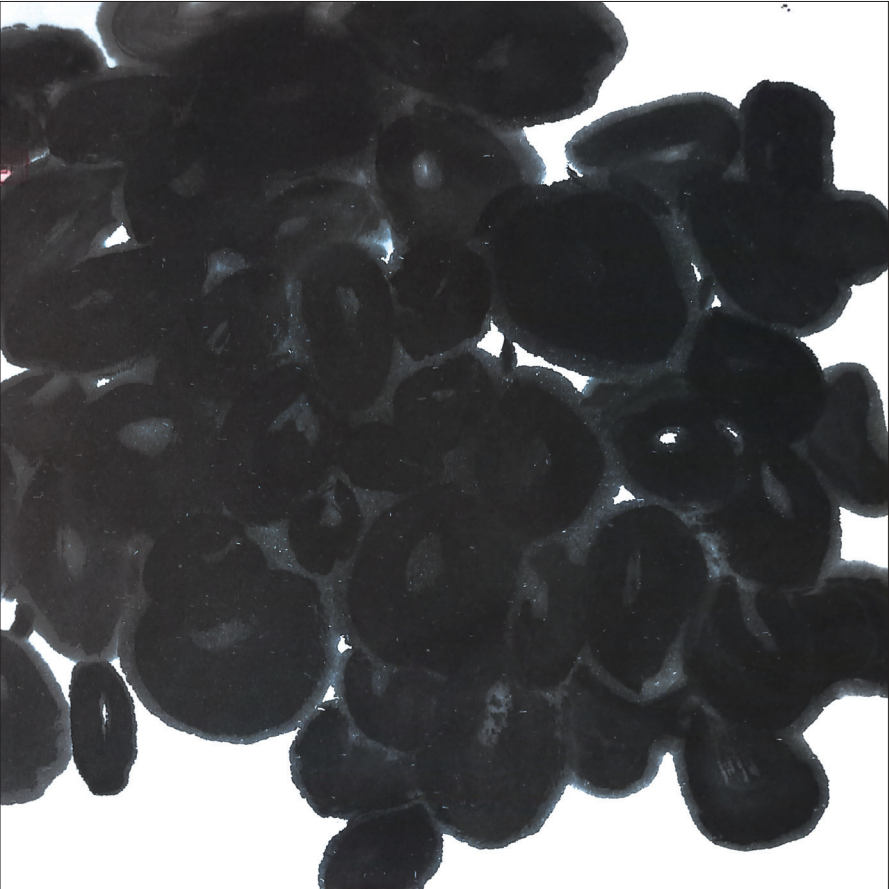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46

47
프랑수아즈 조르쥬 플로토 Françoise George Ploieau

이끼 구성 I Composition linchen I
2020, 34.5×70cm
종이에 수묵 채색 Encre et couleurs sur papier



물통이풀 2 Pilea 2
2023. 34.5×34.5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48

포럼 수이자 조르쥬 플로트 Françoise George Ploieau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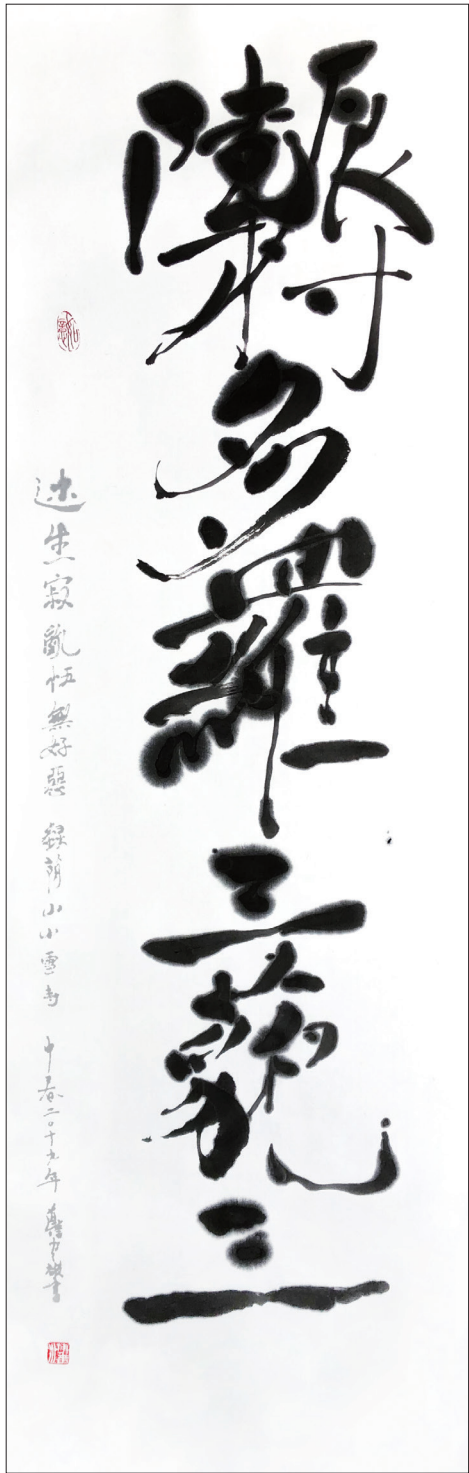
이네스 이켈닉 Inès Igelnick

“동양과 서양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응노 화백1904-1989과 타이센 데시마루 선사1914-1982가 던진 질문 중 하나였다. 이 두 명의 대가의 뒤를 이어 박인경 여사와 지코 볼프 선사스위스 고세추사의 신뢰를 얻어 이네스 이켈닉은 선과 공간의 우주에 대해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작가의 예술적 삶이 가진 의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마음과 마음의 만남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대가들은 이런 과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고 말하곤 한다. 선의 길을 따르며 매일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하는 것은 순수한 기쁨이다. 서예의 음악성은 자연의 선율과 공명한다.

comment relier l'orient et l'occident? tel était une des questions de Lee Ungno(artiste International 1904-1989) et de Deshimaru Taisen(maître zen 1914-1982). C'est dans le sillage de ces deux grands maîtres, avec la confiance de madame Park In-kyung et celle de S. Jiko Wolf (maître zen, koseitsu-ji, Suisse) que la plongée dans cet univers du trait et de l'espace a commencé, des rencontres de cœur à cœur, décisives pour le sens de sa vie artistique. Cette démarche ne s'est pas arrêtée *encore continuer* disaient ils. C'est un pur bonheur de creuser la voie du zen et celle de peindre-calligraphier au quotidien. La musicalité de la calligraphie résonne avec les mélodies des écrits de la Nature.

2023 <회색의 256가지 뉘앙스>, 로브스토어, 파리
2023 <먹의 시>, 도이오 쟈 드 파리
2021 <대지와 먹>, 카세드랄 갤러리, 프라이부르크, 스위스
2017 <해와 달>, 페르튀시에 성, 모르토, 프랑스
2016 <달과의 대화>, 부이옹 드 퀴튀흐, 프라이부르크, 스위스

2023 *256 nuances de gris*, Laubestore Paris, France
2023 *Poésie de l'encre*, Dojo zen de Paris, France
2021 *Terre et encre*, Galerie de la Cathédrale, Fribourg, Suisse
2017 *Soleil et lune*, Château Pertusier, Morteau. France
2016 *Dialogue avec la lune*, Bouillon de culture, Fribourg, Suisse



부처님 말씀에 대한 멜로디 1
Mélodie 1 sur les paroles de
Shakyamuni Bouddha
2019, 145×35cm
멀버리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de mûrier traditionnel



부처님 말씀에 대한 멜로디 4
Mélodie 4 sur les paroles de
Shakyamuni Bouddha
2019, 145×35cm
멀버리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de mûrier traditionnel



덧없는 3 Ephémère 3
 2019, 76×35cm
 멸버리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de mûrier traditionnel



덧없는 2 Ephémère 2
 2019, 76×35cm
 멸버리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de mûrier traditionnel

장 비유후 Jean Villeroux

장 비유후의 작업은 이중 훈련의 결과물이다. 서예와 동양화를 통해 입체와 공백의 상호작용, 흰색과 검은색 사이의 무한하게 다양한 가치,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역할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판화와 인쇄 기법을 통해 이응노 화백과의 작업에서 경험했던 창작의 감성과 역동성을, 먹으로 다시 칠하지 않고, 반복해서 인쇄하는 과정을 통해 재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무와 그 파생물은 섬유의 상호작용, 톱자국이 남긴 흔적 등 깊은 구조를 재발견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금형을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

Mon travail est le résultat de ma double formation. La calligraphie et la peinture orientale m'ont rendu sensible au jeu des pleins et des vides, à la variété infinie des valeurs entre le blanc et le noir, au rôle joué par la matière des éléments structurant ces espaces. La gravure et les techniques d'impression m'ont permis de retrouver dans l'impression répétée, sans nouvel encrage, de une ou plusieurs matrices, la sensibilité et la dynamique de la création que j'avais connue dans mon travail avec Maître Ungno Lee. Le bois et ses dérivés retrouvent ici leur structure profonde – jeu des fibres, traces laissées par des traits de scie – et permettent de construire des matrices à l'identité singulière.

2023 〈오늘날의 각인〉, 프랑스 – 벨기에 교류전, 테일러 재단, 파리

2019 〈저장의 크기〉, 시청 전시실, 라 셀 생 클루, 프랑스

2018 〈드뢰 판화 국제비엔날레 미니프린트〉, 드뢰, 프랑스

2014 〈넘쳐 흐르는〉, 에스파스 르누아르, 뢰이 말메종, 프랑스

2011 〈글쓰기 그림〉, 에스파스 생 마르탱, 파리

2023 *Graver maintenant*, Échange France – Belgique, Fondation Taylor, Paris

2019 *TAILLE D'EPARGNE*, métamorphose du vide, salon de l'hôtel de ville, La Celle St Cloud

2018 Biennale internationale de l'estampe de Dreux *Miniprint*, Dreux, France

2014 *Débordements*, Espace Renoir, Rueil Malmaison

2011 *écriture peinture*, Espace St Martin, Paris



푸가1 Fugue 1
2018, 50×65cm
목판화 Xylographie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5그루의 실나무 5 bois de fil
2020, 65×50cm
목판화 Xylographie



5개의 톱질 자국 5 traits de suè
2020. 65×50cm
목판화 Xylographie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60

61
장 비유루, Jean Villieroux

노엘 사메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영감을 받아 만화를 창작했다. 작가는 대사에 나오는 표정과 몸의 움직임, 몸의 자세에 매료되었다. 시각 예술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조각, 회화, 사진을 번갈아 가며 작업했다. 파리동양미술학교를 만난 것은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수묵과 붓 기법을 발견한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묵을 배운 이후 작가는 매년 진화하는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자연으로 주제로 삼아 캐릭터와 얼굴의 표현력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프랑스와 해외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Depuis l'enfance Noëlle Samé dessine et invente des bandes dessinées dont les acteurs sont inspirés des personnes de son entourage. Elle est fascinée, Interpelée par les expressions, les mouvements des corps dans les dialogues. Par les postures. À ses débuts de plasticienne elle alterne sculpture, peinture, photo. Sa rencontre avec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fut une bifurcation majeure dans son parcours, avec la découverte de cette technique de l'encre et du pinceau qu'elle n'abandonnera plus. Après cette formation, elle trouve son style qui évoluera chaque année. Pendant le covid, elle est revenue aux thèmes de la nature avant de centrer à nouveau sa recherche sur l'expressivité des personnages et des visages. Noëlle Samé expose régulièrement en France et à l'étranger.

- 2022 <시인의 일본/서양 대화 흔적>, 리즐 쉬르 라 소르그
- 2022 <육화된 선>, 샌 프란시스코 & 헬드버그, 캘리포니아
- 2021 앵귀베르틴 도서관/미술관, 카르팡트라, 프랑스
- 2021 샤펠 뒤 콜레주, 카르팡트라, 프랑스
- 2020 <먹의 대화, 먹의 예술>, 미국 소사이어티 아비뇽 & 파리

- 2022 *Japan/Occident Dialogue Trace de Poète*, L'Isle sur-la Sorgue
- 2022 *The emboided line*, Art of Ink International Society, San Francisco et Healdsburg, Californie
- 2021 INGUIMBERTINE Bibliothèque/Musée, Carpentras, France
- 2021 CHAPELLE DU COLLÈGE, Carpentras, France
- 2020 *INK DIALOGUE de Art of ink*, in America Society Avignon et Paris

Noëlle Samé 노엘 사메

인물 21 Personnage 21
2022, 75×45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64

65
노엘 사메 Noëlle Samé



인물 222 Personnage 222
2022, 137×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인물 122 Personnage 122
2022. 136 x 45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재키 & 마르틴 페랭은 함께 작업하는 듀오 예술가이다. 처음에는 도예 작업을 예술을 시작했으며 이후 이용노에게 동양의 서예를 배우고 익혔다. 서예는 기호와 제스처, 기표와 사유의 영역이다. 1996년 페랭 & 페랭은 자신의 영감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 유리를 선택했다. 예술가 레지던시 기간 동안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빌드-인-글래스 Build-In-Glass’라는 독창적 작업 방식을 개발했다. 이 방식은 본질적으로 작곡, 건축, 표의문자 구성과 관련된 규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파리와 오베르빌리에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여러 국내외 미술관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Forment un duo Inséparable qui œuvre à 4 mains. D’abord céramistes ,ils s’initient et pratiquent la calligraphie extrême orientale. C’est le terrain du signe et du geste, du signifié et de la pensée. En 1996 ils choisissent le verre comme médium pour exprimer leurs inspirations et leurs réflexions. Lors d’une résidence d’artistes, ils mettent au point leur propre méthode: le *Build-in-Glass* et créent ainsi littéralement leur langage personnel. Leur méthode relève pour l’essentiel des règles qui participent à la fois de la construction des idéogrammes, de l’architecture et de la composition musicale. Perrin & Perrin vivent et travaillent à Paris et à Aubervilliers. Leurs œuvres font partie de plusieurs collections de Musées Nationaux et Internationaux.

- 2024 <아르모니아 메티스 에코>, 갤러리 네그로폰테, 파리
- 2024 <아르모니아 메티스>, 베니스
- 2024 <디자인 마이애미>, 갤러리 네그로폰테, 로스앤젤레스
- 2024 <중국문화원>, 파리
- 2024 <노마드>, 갤러리 네그로폰테, 생 모리츠, 스위스

- 2024 *ARMONIA METIS l'ECHO*, Galerie Negropontes, Paris
- 2024 *ARMONIA METIS*, Venise
- 2024 *DESIGN MIAMI*, Galerie Negropontes, Los Angeles
- 2024 *Institut Culturel de Chine*, Paris
- 2024 *NOMAD*, Galerie Negropontes, Saint Moritz, Suisse

Perrin & Perrin (Martine & Jacki) 페랭 & 페랭 (마르틴 & 재키)



아이슬란드 1 & 아이슬란드 2
ICELAND I et ICELAND II

2011, 34.5×20×4.3cm / 35×20.5×4cm
빌드인 유리공법 Build-in-Glass
© S. Briolant



만남 Rendez-Vous
2024, 22.7 x 12.5 x 10.3 cm
빌드인 유리공법 Build-in-Glass
© S. Briolant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페렐 & 페렐 (마르틴 & 잭키) Perlin & Perlin (Martine & Jacki)



이후 Depuis
2024, 11.3 x 9.3 x 11 cm
빌드인 유리공법 Build-in-Glass
© S. Briolant

Sybille Friedel 시빌 프리델

1984년 이응노 화백을 만난 후 서예를 시작한 시빌 프리델은 “바다에 빠지듯, 익사할 정도로 서예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붓, 연필, 샌더, 왁스, 스틸, 브론즈 와이어 등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서예적 몸짓은 그녀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 영감의 원천은 인간, 동물, 식물 세계 사이의 상호 의존성이며 이를 드로잉, 회화, 청동, 나무, 강철 조각, 청동과 금으로 만든 주얼리 등으로 표현한다. 2023년에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는’ 600여 점의 드로잉 작품 중 90여 점의 드로잉을 모아 작가의 저서 ‘풍경’을 출간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프랑스, 중국, 일본, 레바논에서 전시회를 연 후 2013년 프랑스 남부 아비뇽 인근으로 이주해 매년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Je suis tombée dans la calligraphie comme on tombe dans la mer, à s’y noyer explique Sybille Friedel, artiste française qui pratique la calligraphie à la suite de sa rencontre avec Lee Ungno en 1984. Qu’elle prenne un pinceau, des crayons, une ponceuse, des fils de cire, d’acier ou de bronze le geste calligraphique parcourt toutes ses oeuvres. La source de son inspiration porte sur les relations d’interdépendance entre les mondes humain, animal et végétal qu’elle traduit en créant des dessins des peintures des sculptures en bronze en bois, en acier ou des bijoux en bronze et or. Le livre d’Artiste *Paysages* est édité en 2023, 90 dessins sont tirés d’un corpus de 600 dessins *qui sondent la figure humaine*. Après avoir exposé dans les années 1990/2000 en France en Chine, au Japon, au Liban, elle s’installe dans le sud près d’Avignon en 2013 où elle expose chaque année son travail.

2023 〈고독의 영역〉, 샤토뇌프-뒤-파프, 프랑스

2023 〈예술가의 모석〉, 미니마테르피스 갤러리, 파리

2021 〈정원의 두 사람에게〉, 생 루이 수도원, 아비뇽, 프랑스

2021 〈나무의 찬양〉, 아라몽, 프랑스

2020 〈형태학〉, 생-탕드레 비유뇌브-레-아비뇽 수도원과 정원

2023 *Domaine de la Solitude*, Châteauneuf-du-P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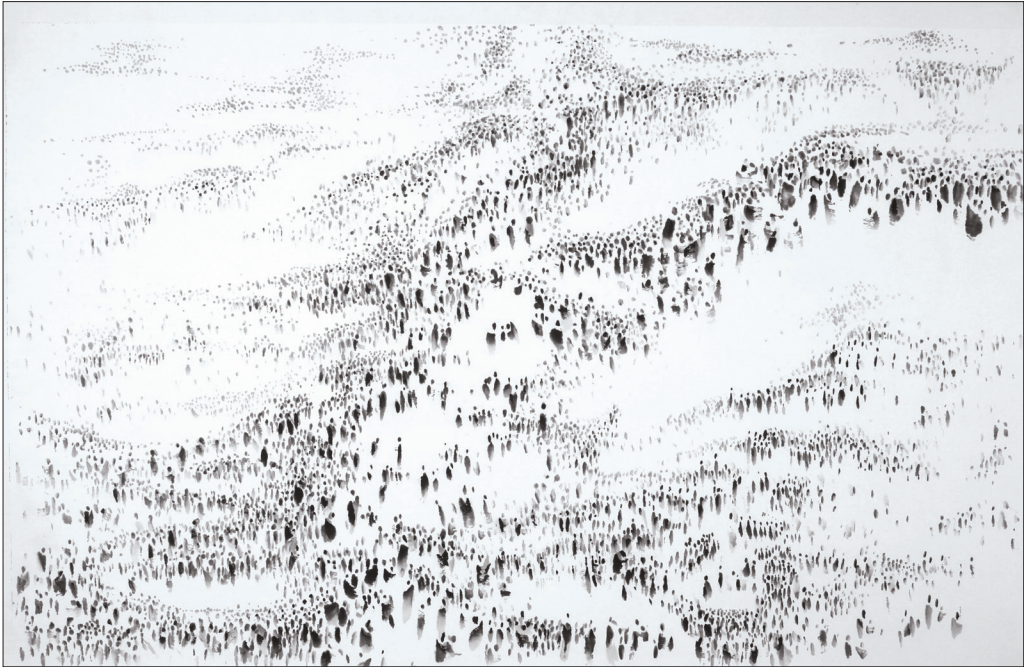
2023 *Bijoux d’artiste*, Galerie Minimaterpiece, Paris

2021 *À deux au jardin*, Cloître Saint Louis, Avigno

2021 *Éloge de l’arbre*, Château de Plaisir, Aramon

2020 *Morphologie*, Abbaye et jardins Saint-André, Villeneuve-lès-Avignon

이민자 Les Migrants
2018. 68×107cm
캔버스에 잉크 Encre sur toile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76

77

시빌 프리델 Sybille Friedel



이민자 Les Migrants
2018. 68×89cm
캔버스에 잉크 Encre sur to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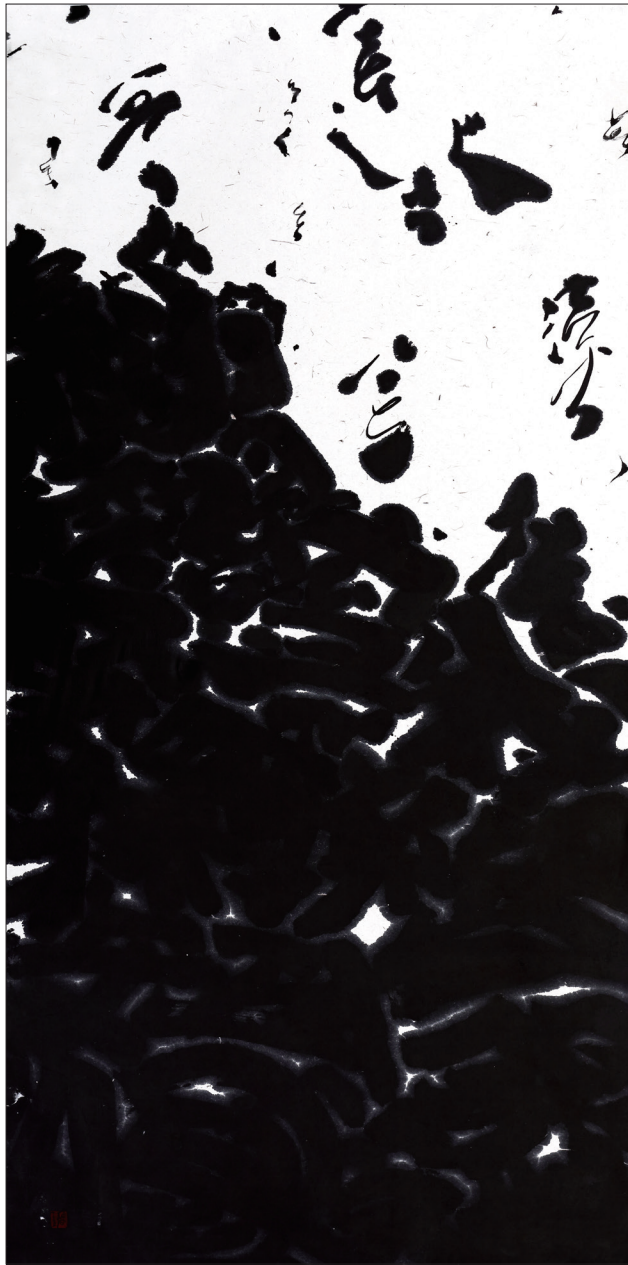
비르제니의 예술적 접근 방식은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에서 공부할 때부터 표의문자, 리듬, 시와 깊은 연관을 맺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작가는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서예를 배우면서 손으로 그린 선의 표현 가능성을 접하게 되었다. 자신이 그리고, 왜곡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기호는 읽혀지거나 인식되어야 한다는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기호이다. 먹과 붓으로 그리는 이 행위에서는 순간의 덧없음과 강렬함이 도전이 되며, 생생하고 조화로우며 진실한 선을 찾는 것도 도전이 된다. 작품 〈씨앗〉은 석도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꽃이 시들고 대지에 영양을 공급하듯 작품은 사라지지만 붓의 예술은 남는다.

Ma démarche artistique est fondée sur ce lien profond que j’entretiens avec les idéogrammes, leur rythme, leur poésie, depuis mes études à l’Inalco. L’apprentissage de la calligraphie au sein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dans les années 2000 m’a ouvert la voie aux possibilités expressives de la ligne tracée par la main. Les signes que je peins, déforme et anime, sont résolument libérés de la contrainte d’être lus ou reconnus. Dans cet acte de peindre à l’encre et au pinceau, l’éphémère et l’intensité de l’instant constituent un défi, tout comme la recherche d’un tracé vivant, harmonieux et sincère. “Semences” s’inspire d’un poème de Shi Dao. Tout comme les fleurs fânent et nourrissent la terre, les oeuvres disparaissent, mais l’art du pinceau demeure.

- 2024 〈글쓰기〉, 도멘느 드 마니시, 타벨, 프랑스
- 2022 〈다리과 눈물〉, 생루이 수도원, 아비뇽, 프랑스
- 2022 〈육화된 선〉, 재팬타운, 샌프란시스코 & 해머프라이어 갤러리, 미국
- 2021 〈먹의 길〉, 클레주 샤펔, 카르팡트라, 프랑스
- 2020 〈먹의 대화〉, 미디어테크 세카노, 아비뇽 & 파리 8구청

- 2024 *Écritures*, Domaine de Manissy, Tavel
- 2022 *Ponts et déchirures*, Cloître St Louis, Avignon
- 2022 *The embodied line*, Japantown, San Francisco and Hammerfriar gallery, Healdsburg CA
- 2021 *Voies d'encre*, Chapelle du college, Carpentras
- 2020 *Ink dialogue/Dialogue d'encre*, Médiathèque Ceccano, Avignon et Mairie du 8ème Paris

Virginie Cadart Travaudei 비르제니 카다르트라바를



씨앗 III Semances III
2020, 140×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82

83

비르지니 카다르 트라바렐 Virginie Cadart Travadel



씨앗 IX Semences IX
2020, 130×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씨앗 | Semences |
2020, 70×70cm
종이에 먹 Encre sur papier

푸른 눈의 수목 |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84

85
비글지니 카다르 트라비엘 | Virginie Cadart Travadel

이응노 Lee Ungno

1964년 파리동양미술학교가 설립된 이후 이응노 화백은 동양화를 서구에 보급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파리동양미술학교는 이응노 화백이 도불 전 국내에서 운영하던 ‘고암 화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예술’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선구적 행동이었다. 이응노 화백이 작고한 후에는 박인경 화백과 이용세 화백이 강의를 이어갔으며, 이응노에게 수학한 제자들이 그의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현재까지도 프랑스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Après la création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en 1964, Lee Ungno a joué un rôle essentiel dans la diffusion de cet art en Occident. Cette académie s’inscrivait dans la continuité de l’Institut Goam que Lee Ungno dirigeait avant de quitter la Corée. À une époque où les Français manquaient de connaissances sur la culture coréenn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a été une initiative pionnière visant à faire connaître la Corée, son esprit et sa culture à travers l’art. Après le décès de Lee Ungno, Park In-kyung et Lee Young-sé ont poursuivi ses enseignements, et ses disciples perpétuent son esprit artistique en continuant à travailler dans toute la France.



88

푸른 눈의 수목 L'encie De Chine Aux Yeux Bleus



89

이응노 Lee Ung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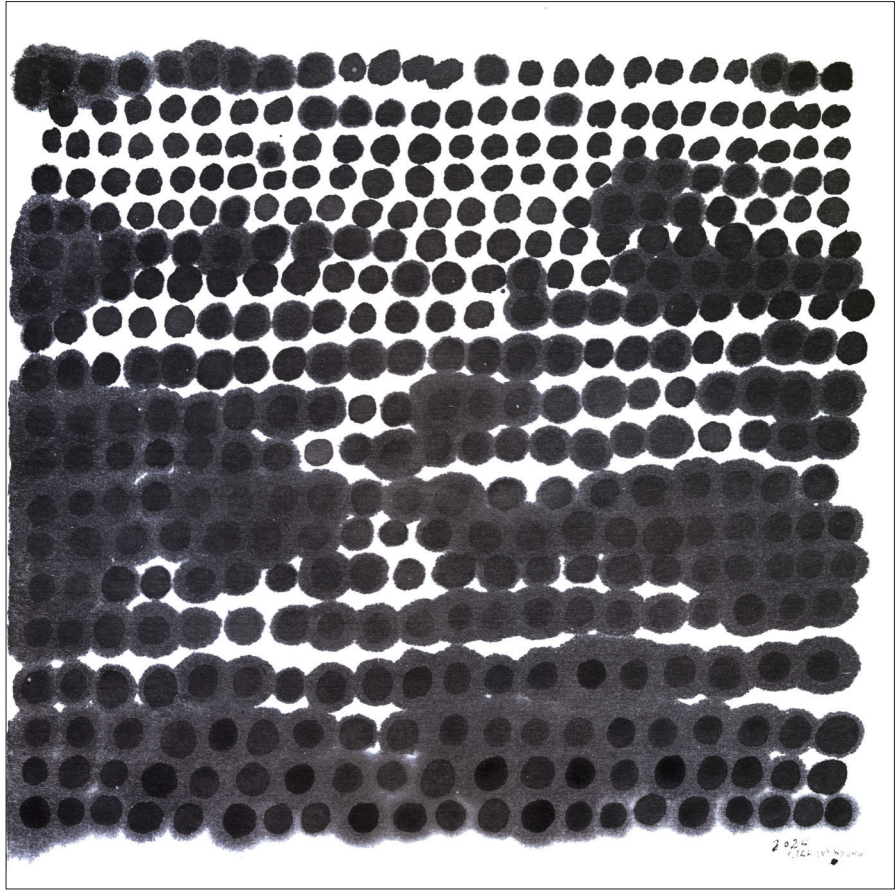
박인경은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입선으로 화단에 등장한다. 작가는 한국화의 미래를 서양 모더니즘 미술의 문맥에서 새롭게 모색했으며 전통을 답습하는 것은 창작 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1958년 이응노와 함께 프랑스로 떠난다. 서예와 수묵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표현주의, 앵포르멜 추상 등 현대미술의 실험을 과감하게 차용했다. 대담한 구도, 거친 붓질, 발묵 효과를 통해 1950-60년대 뛰어난 추상화를 창작했다. 100세를 바라보는 현재에도 창작과 전시 개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박인경 화풍의 특징은 먹물 고유의 침투하는 특성을 추상에 활용한 점이다. 먹의 음영을 세밀하게 구사하며 나무, 숲, 호수, 산과 같은 자연을 추상하는데 활용한다.

Park In-kyung a fait son entrée sur la scène artistique coréenne en 1949 en étant sélectionnée au premier Salon National des Beaux-Arts de Corée. Elle a cherché à renouveler l'avenir de la peinture coréenne en la situant dans le contexte de l'art moderne occidental, refusant de suivre aveuglément les traditions, ce qui l'a menée à partir pour la France en 1958 avec Lee Ungno. Park a su marier la tradition de la calligraphie et de l'encre avec l'audace des mouvements modernistes tels que l'expressionnisme et l'art informel. Ses œuvres des années 1950 et 1960, marquées par des compositions audacieuses, des traits de pinceau énergiques et des effets d'encre dynamiques, comptent parmi les plus belles créations abstraites de cette période. À près de cent ans, elle continue à peindre et à exposer régulièrement. Sa technique se distingue par l'utilisation subtile de l'encre, exploitant à merveille ses nuances et sa profondeur pour créer des paysages abstraits évoquant la nature — arbres, forêts, lacs, montagnes — et donner vie aux œuvres.

- 2023 <붓의 춤>, 갤러리 바지유, 파리
- 2023 <추상의 가장자리에서>, 누마가 갤러리, 밀빈느, 스위스
- 2022 <세 명의 리>, 서울 키아프, 갤러리 바지유
- 2021 <내 방 창 너머>, 이응노미술관, 대전, 한국
- 2020 <박인경 - 대지의 힘>, 갤러리 누마가, 콜롬비에, 스위스

- 2023 *Dance of Brush*, Galerie Vazieux, Paris,
- 2023 *Aux confins de l'abstraction*, Numaga Gallery, Milvignes, Suisse
- 2022 *Les 3 Lee*, à Kiaf Seoul avec la Galerie Vazieux, Séoul
- 2021 *Over my room window*, Lee Ungno Museum, Daejeon, Korea
- 2020 *In-kyung Park-Les Forces telluriques*, Galerie Numaga, Colombier, Suisse

Park In-kyung 박인경



풍경 Paysage
2024, 50×50cm
종이에 수묵 Encre sur papier
© Park In-kyung / ADAGP, Paris – SACK, Seoul, 2024

이용세 화백은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 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와 에콜 데 보자르 École des Beaux-Arts를 다녔으며 아시아 전통에 기반해 동시대 회화를 창작한다. 그림 그림 속에서 자연은 추상화되어 빛, 색채, 질감과 뒤섞이며 종이 위에서 광채를 낸다. 이용세는 자신이 개발한 스탬핑 기법을 사용해 나무판에 독특한 문양을 새긴 후 한지를 올려놓고 색을 입혀 다양한 모티브를 찍어낸다. 한지의 은은한 빛과 물감의 색채가 결합하며 마치 빛, 바다, 숲 속에 있는 듯한 깊은 명상감을 자아내고 때로는 거대한 타피스트리처럼 벽에 걸려 주변 공간에 영향을 끼친다.

Lee Young-sé a étudié à l'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 et à l'École des Beaux-Arts de Paris. Son travail s'inspire des traditions asiatiques tout en explorant la peinture contemporaine. Dans ses œuvres, la nature est abstraite et se mêle à la lumière, aux couleurs et aux textures, créant un éclat tout particulier sur le papier. Lee Young-sé utilise une technique de tamponnage qu'il a lui-même développée: il grave des motifs uniques sur des planches de bois, pose du papier coréen (ou hanji) par-dessus, puis applique des couleurs pour y imprimer divers motifs. La lumière douce du hanji, combinée aux teintes des pigments, évoque une ambiance méditative, plongeant le spectateur dans un univers fait de lumière, de mers et de forêts. Parfois, ses créations se déploient comme de grandes tapisseries suspendues, influençant l'espace autour d'elles.

- 2024 <대지의 정신>, 스트림 아트 갤러리, 브뤼셀, 벨기에
- 2023 <침묵의 소음>, 바지유 갤러리, 파리
- 2021 <아트 파리 솔로 쇼>, 바지유 갤러리, 파리
- 2019 <관조>, 바지유 갤러리, 파리
- 2018 <이용세>, 누마가 갤러리, 콜롬비에, 스위스

- 2024 L'Esprit de la Terre, Stream Art Gallery, Bruxelles, Belgique
- 2023 Le Bruit du Silence, Galerie Vazieux, Paris, France
- 2021 Art Paris Solo Show, Galerie Vazieux, Paris, France
- 2019 Contemplation, Galerie Vazieux, Paris, France
- 2018 Young-Sé Lee, Galerie Numaga, Colombier, Suisse

Lee Young-sé 이용세



광도 VII 시리즈 Série Luminosité VII
2021, 45×45cm
한지에 먹, 과슈, 아크릭, 미네랄
Encre, guache, acrylique, minéraux sur papier Hanji
© Lee Young-se / ADAGP, Paris – SACK, Seoul, 2024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ref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100

Kim Sangho,
conservateur du Musée Lee Ungno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 미술학교’

101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미술학교'
Claire Kito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ref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김상호,
이응노미술관 학예팀장



1964년 이응노 화백은 파리시립 동양미술관인 세르누쉬 미술관Cernuschii Museum에 동양미술 강좌를 개설한 이후 작고 전까지 프랑스인들에게 수묵화와 서예를 가르쳤고, 정기적으로 시연회도 개최해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이 강좌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최초로 개설된 동양미술 수업이었다. 1949년 이응노는 이미 서울에서 ‘고암화숙’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고암화숙의 역사까지 고려해 보면 이응노에게 교육활동은 예술창작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르누쉬 미술관에 개설된 강좌뿐만 아니라 파스티르Pasteur, 악소Haxo, 프레 생-제르베Pre-Saint Gervais 등 이응노는 이사하는 곳마다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동양미술 강좌를 열어 꾸준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① 마엘 벨렉, 「유럽에서의 이응노의 작품세계 전개에 있어 파리동양미술학교의 주요 역할」, 《이응노, 낯선 귀향》전 학술행사 자료집(대전: 이응노미술관, 2018),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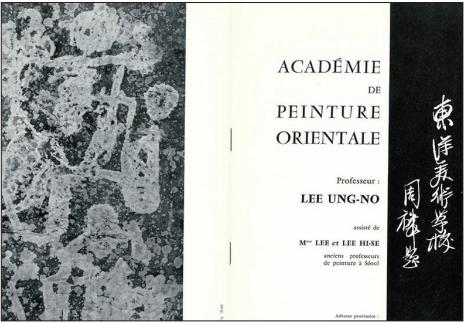
이응노의 교육 활동은 그의 창작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2016년 이응노미술관은 〈에콜 드 이응노-파리동양미술학교〉전을 개최해 학교의 역사, 연수회, 강의방식, 교습서, 시연회 자료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파리동양미술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은 지금까지 약 3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응노에게 배운 프랑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전시 〈푸른 눈의 수묵〉은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이응노를 사사한 작가들의 현재 활동에 대한 관심에서,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통해 이응노가 프랑스에 남긴 ‘한국-프랑스’ 화풍의 흔적을 가늠해 보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응노를 거쳐 간 작가 중 조각가 알랭 키릴리Alain Kirili, 1946, 화가 콜레트 브룬슈빅Colette Brunschwig, 1927-과 ① 같은 ‘빅 네임’도 있지만 프랑스 각지에서 동양화를 가르치며 꾸준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도 많다. 그들 중 일부는 ‘묵기Muk-ki’라는 수묵화/서예 그룹을 결성해 열성적으로 활동하며 스승 이응노의 가르침을 전파했고 한국에서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푸른 눈의 수묵〉전은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꾸준히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11명의 프랑스 제자들의 작품을 선별해 전시에 소개하고 이들의 예술을 통해 파리동양미술학교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파스티르가 아틀리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이응노와 박인경

푸른 눈의 수묵 L'encore De Chine Aux Yeux Bleus

교섭, 충돌, 융합
이응노를 사사한 작가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소위 이들을 ‘에콜 드 이응노Ecole de Lee Ungno’ 즉 이응노 유파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정립된 유파라기 보다는 느슨하게 해석해 이응노의 화풍을 개성적으로 수용하며 창작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림의 소재로 사용한 한자, 붓과 먹의 기본기, 종이 위의 콤포지션 형상, 문자를 회화적 기호로 활용하는 방식 등 이응노의 예술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조형적 요소가 11명의 프랑스인들의 예술 속에 녹아 들어있다. 이 11명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우리는 이응노 생전은 물론 작고 후에도 꾸준히 프랑스 내에서 이어져 오는 이응노의 화풍 그리고 동서양 예술의 조화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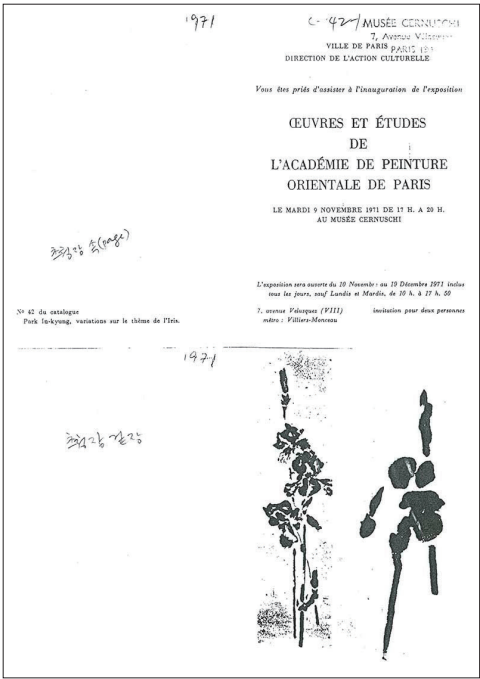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미술학교’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net p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1964년 파리동양미술학교 강의 홍보물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행해진 가르침은 동서 예술의 융합을 추구한 이응노의 미술과 같다. 그의 현대적 작품에서조차도 서예와 수묵화의 전통은 이응노 추상예술의 기본적 재료가 되었고 이는 제자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응노 예술의 융합적 특성은 그와 파리동양미술학교가 추상미술 운동의 중심지 파리에서 동서 예술의 교차로에 서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11명의 제자들의 작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동서양 예술이 만나는 파리 예술계의 흔적일 것이다. 미술사학자들은 20세기 중반 앵포르멜, 구타이, 전위서, 추상표현주의 등 파리, 뉴욕, 도쿄에서 벌어진 예술의 간섭, 만남, 충돌을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을 세계미술사의 큰 흐름에서 이응노의 강의실이라는 지류로 초점을 돌려보면 파리동양미술학교 자체가 동서양 예술이 만나는 ‘문화적 접촉지대’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특히 박인경 여사가 밝혔듯이, 이응노는 단순히 서구 현대미술을 배우러 파리에 갔다가보다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자신이 창작하고 있는 반추상적 작품이 가진 동시대성을 파리에서 펼쳐보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용구의 혁명’을 찾는 동시에, 프랑스인들에게 동양미술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따라서 파리동양미술학교는 서양미술의 중심지 파리에서 동시대 미술과 접촉하며 새로운 조형언어를 찾으려는 이응노의 여러 예술적 시도 중 한 방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② 정의정, 「동시대성의 매개체로서의 한자」, 『이응노 해외연구사』 (대전: 이응노 연구소, 2022), p. 340.



1971년 세르누쉬 미술관에서 개최된
파리동양미술학교 전시 초청장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에
성립된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는 타 문명과
의 비교라는 사고의 틀을 낳았다. ㉓ 이런 비교의 틀
속에서 동양미술은 20세기 서구문화가 주도한
모더니티 미술운동의 비주류였지만, 이응노는
동양화 강의를 통해 프랑스인들에게 비서구권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동시대 미술에 대한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탈서구중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서구 모더니즘의 순혈주의를
희석시킬 정도의 힘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구적 잣대로 비주류에 속했던 동양미술이
당시 현대미술의 핵심이었던 추상을 창작할 수
있는 색다른 방식을 보여주었다. 동서 미술이
혼성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화적 긴장 상태는 문화적 충돌과 교섭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응노는 1979년, 1981년 파리동양미술학교
출신 작가로 구성된 전시 〈앵테르페랑스
Interférences〉를 자신이 운영한 갤러리 고려에서
개최했는데 불어 ‘앵테르페랑스’는 우리말로 교섭,
간섭이라는 뜻이다. 이 전시 서문에서 이응노는
‘앵테르페랑스’ 전시가 파리동양미술학교
설립의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㉔ 동서양
미술의 간섭과 충돌의 장으로 기능한
파리동양미술학교의 의미에 대해 이응노가
내놓은 대답이다.

㉓ Walter D. Mignolo, On Comparison: Who is comparing what and why?(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p. 117.

㉔ 김현숙, 『에콜 드 이응노: 동양미술학교의 비전』, 『이응노, 동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대전: 이응노미술관, 2024), p.182.; 정의정, 위의 책, p. 340.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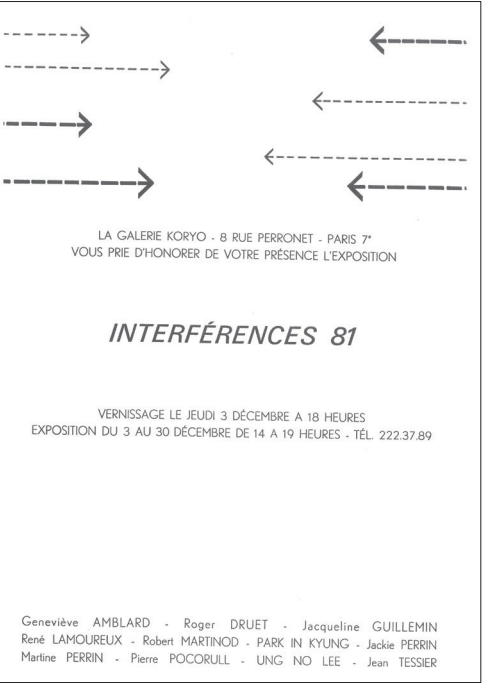
서예가 가진 회화적 추상의 가능성은 이미
20세기 초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후
일본의 전위서 그룹 등 서예의 독자적 조형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프랑스와 미국의
추상미술계와의 접촉도 이루어졌다. ㉕ 추상미술이
활발히 논의되고 창작되었던 곳은 서구였지만
동아시아에서 서예의 회화성과 현대성을 두고
벌어진 논쟁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미술도
모더니즘 미술의 자생적 씨앗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응노의 작품을 두고 스위스의
평론가 폴 세이라Paul Seylaz는 ‘서예의 흔적이
있는 타시즘tachisme ㉖’이라고 이해했는데 이
언급에서 서예가 먼저인지 타시즘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50-60년대 앙리 미쇼Henri
Michaux와 같은 프랑스 예술가도 먹을 이용해
타시즘을 시도했거나, 미국의 화가 마크 토비Mark
Tobey가 서예의 자유로운 필선에 주목했듯이 당시
서양에서도 먹과 서예의 추상적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세이라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두고 ‘동서양의 삼투압un rapport osmotique’ 현상이라
언급했다. ㉗ 이런 해석은 서양에서 타 문명권으로
일반적 이식되는 단일한 모더니즘이 아니라
각기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던 자생적인 복수의
모더니즘Plural Modernities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㉕ 구나연, 『1950년대 일본 전위서의 전개와 동시대 추상미술: ‘문자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응노의 문자추상: 문장, 문양, 패턴』(대전: 이응노미술관, 2021), p.221.

㉖ Paul Seylaz, Ungno Lee: Foules-Signes 1975-1984(Switzerland: Club44, 1984)

㉗ Paul Seylaz, Ungno Lee(Switzerland: Musée des beaux-arts La Chaux-de-Fonds, 1963)

1981년 앵테르페랑스 전시 홍보물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미술학교'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ref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présente les travaux de calligraphie et de peinture
ainsi que les croquis réalisés au cours du stage

d'août 1988 en Bretagne. Sujet : mer, rochers, arbres et plantes.



*Au-delà du bleu de la mer
apparaissent des vagues blanches
d'où jaillit mon esprit.
Dans un mouvement éternel,
la mer sculpte les roches
créant ainsi le sage et le Bouddha.*

Poème d'UNG NO LEE

EXPOSANTS

Michel	BAYET
Irène	CASATI
MIchelle	FISCHER
Roland	FENARD
Sybille	FRIEDEL
Bernadette	GUILLAUME
Micheline	GROB
Valérie	HERMANE
Louise-Marie	LEMANISSIER
Jocelyne	MARTIN
Florence	SCHROBILTGEN
Nelly	STERVINO
Jean	TESSIER
Martine	VILLANNEAU
Jean	VILLEROUX

Vernissage jeudi 8 décembre de 17 heures à 21 heures.
Exposition du 8 au 22 décembre 1988.
Tous les jours de 14 heures à 18 heures, sauf dimanche et lundi.

Galerie KORYO
8, rue Perronet, 75007 PARIS ; (1) 42 22 37 89
(M° Saint-Germain- des-Prés ou rue du Bac).

1988년 갤러리 고려에서 개최된
파리동양미술학교
견습 과정에서 제작된 작품
전시회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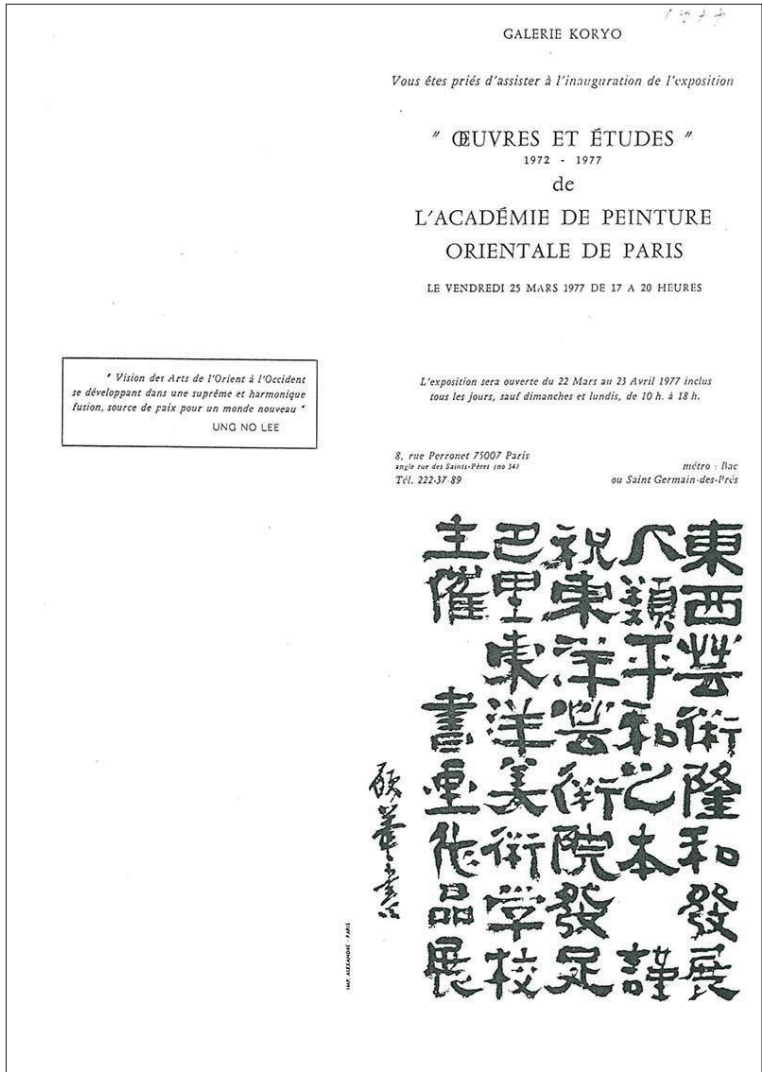
107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미술학교'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ref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마찬가지로 이응노의 추상이 자생적인 것인지
외래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이면에는 서구 모더니즘의 일방적 수용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의문을 가능케하는
탈서구중심주의적 사고는 서양미술사의
일반적인 흐름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포함해 더 확장된 세계의
현대미술 흐름을 구축해야 비로소 조망될 수
있다. ⑧ 파리동양미술학교의 교육자 이응노의
활동은 이런 범세계적 흐름의 사례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고
흐르는 문화 시대 속에서 예술을 익혔던 11명의
프랑스 제자들의 작품은 파리동양미술학교가
가졌던 문화적 충돌과 간섭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파리동양미술학교의 제자들
마르틴 & 재키 페랭Martine & Jacki Perrin은 도예에서
시작해 유리 공예에 매진하고 있는 듀오 작가로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이응노에게 서예 수업을
들었다. 자연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해 여백의
의미와 서예가 가진 리듬감, 몸과 붓이 하나가
되어 그려내는 순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내면의 흐름과 선에 대한 탐색과도 연결해
동양사상과 본인들의 공예작품을 잇고 있다.
이응노는 프레-생 제르베의 작업실에 이들을
종종 초대했고 회화, 조각 작업을 같이하며
친분을 쌓았다. 서예의 기본 획을 익히고 이들은
풍경화를 배우며 붓과 산화물을 사용하여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유리 공예
작품에서도 여백을 가진 먹 선을 활용해 동양적
감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이응노에게 서예를 배웠고 이응노와
박인경이 운영하는 갤러리 고려에서도 전시하는
등 공예 작품의 문양으로 서체의 필획이
느껴지는 무늬를 활용하기도 했다. 텍스타일
디자인, 벽지 등을 제작하고 도자 업체를 위한
디자인을 고안하기도 했는데 일련의 디자인
활동은 세브르 도자 공장과 협업한 이응노의
활동을 떠올리게 한다. 1988년 이후 페랭
부부는 유리가 가진 예술적 가능성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유리의 불륨, 형상, 덩어리를 만드는
빌드-인-글래스 공법을 개발해 불록을 제거하고
직접 조각을 새겨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유리 작품의 내부 지질과 고고학적 지층과 같은
레이어는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유리의 질감, 색감, 빛, 조형적 형태과
모두 어울리며 세련된 미감을 선보인다.

⑧ "Interview with Alain Seban
President of the Centre Pompidou",
Plural Modernities from 1905 to
1970, Centre Pompidou Homepage,
accessed 27 Aug. 2024, <https://www.centrepompidou.fr/en/program/calendar/event/ccARK9>



1977년 파리의
갤러리 고려에서 열린
파리동양미술학교
전시회 홍보물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크리스틴 다바디-파브르게트Christine Dabadie-Fabreguettes는 1971년부터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이응노에게 동양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1985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비뇽에서 동양미술학교 수업의 일부를 진행하기도 했다. 크리스틴은 문인화와 서예를 공부했고 현대미술과 수묵의 정신을 접목해 창작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그녀 작품 중 두드러지는 그림은 거대한 고목을 그린 그림인데 먹의 박력있는 아름다움이 사머니즘적 세계관 속에서 빛나고 있다. 거대한 나무도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마치 한국 민속문화의 서낭당처럼 구체적인 생명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작품에 등장한다. 그 위엄있는 모습에서 서예의 획과 붓질, 그리고 그것이 이루는 조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가의 또 하나의 특별한 작품은 시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소재로 제작한 캘리그램 시리즈이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데 문자와 서체의 필획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하며 시의 울림을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깨알같이 글자를 써넣거나 굵은 붓으로 짙게 그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가의 기법은 문자를 회화적으로 활용한 탁월한 사례에 속한다.

클레흐 키토Claire Kito는 대학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1986년 이응노에게 서예와 수묵화를 배웠다. 이후 수묵 작품을 주로 창작하며 프랑스를 비롯해 해외 갤러리에서 전시를 다수 개최했다. 키토는 두보를 비롯한 중국의 시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거나, 한자의 형태를 변용한 회화적 문양을 창작해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낸다. 〈먹의 산〉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은 산처럼 쌓아 올린 문자 속에서 문자 특유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키토의 또 다른 대표작은 〈군상〉 연작인데 굵은 선으로 단숨에 그린 인물 형상을 겹겹이 쌓아 올려 인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드러낸다. 붓이 가진 순간성, 우연성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구사해 빠른 속도로 잡아낸 군상의 형태에서 우리는 능숙한 붓질과 더불어 이응노의 예술도 떠올려 볼 수 있다. 작가가 이를 통해 던지는 질문은 가상과 기계가 지배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이 갖는 의미이다.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 사라져가고, 인간의 가치가 폄하되는 시대에 작가는 군상을 통해 존재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미술학교',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ref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야외 사생을 지도하는 이응노



프랑스 낭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뷔르경Élisabeth Burgun은 파리에서 장식미술을 공부하고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서예와 수묵화를 배웠다. 서예의 기법을 활용해 현대적 회화를 창작하고 있으며 붓으로 보들레르, 위고, 프레베르와 같은 프랑스 시인들의 시를 회화적으로 활용해 캘리그램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작가의 문자에 대한 관심은 한자와 알파벳을 넘나든다. 그녀의 최근작은 화산의 마그마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수묵채색으로 표현한 화산 폭발의 열기와 질감이 매우 생동감 있다. 문자추상을 기본으로 한 작품은 이응노의 유산을 상기시키지만 작가는 좀 더 다양한 색채를 다루고, 한자의 조형성에 대한 프랑스인만의 감성을 발전시켜 문자추상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알파벳과 글씨를 쓰는 몸짓의 운동감을 불꽃이나 연기, 바위 표면, 나무껍질과 같은 거친 질감의 표현에 디테일하게 활용해 작품의 세밀한 부분까지 밀도있게 구성하는 솜씨가 훌륭하다. 그녀의 주요작인 〈바위〉시리즈는 문자와 먹의 음영으로 바위가 있는 풍경을 그려낸 그림인데 수묵화의 전통적 주제를 견지하면서도 현대적 실험이 동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에 시를 적어넣는 동양화의 전통을 모방한 것처럼 그림 속에 불교 승려들의 시를 적어넣어 불교적 세계관 속에 존재하는 명상적 자연을 관조하듯 보여주고 있다.

플로렌스 슈로빌트겐Florence Schrobiltgen은 보르도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고 파리에서 드로잉과 장식미술을 공부하고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20여년간 활동했다. 1987년 스승 이응노를 만나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서예와 수묵화를 익혔고 보르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작가는 먹과 안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통 수묵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장식미술을 공부하고 디자이너로 활동한 경력을 작품에서 읽을 수 있다. 장식적이고 색채가 풍부하며 먹 이외 색채와 실, 실크스크린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기법에서 작가만의 강한 개성이 드러난다. 제비와 연꽃을 소재로 삼은 작품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채감이 한국의 민화적 모티브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프랑수아즈 조르주 플로토Françoise George Ploteau는 1987년 파리동양미술학교를 수강했고 파리의 작품 보존수복 공방에서 예술품 복원 업무를 배웠다. 플로토의 그림은 동양화의 기본에 충실한 작품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먹의 효과를 탐구해 자연과 마주했을 때의 인상을 표현하는 전통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물에 대한 사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응노의 가르침대로 플로토는 사물과 자연을 화폭 위에 충실하게 옮기는 작업을 반복한다. 점을 찍어 시각적 효과를 꾀하거나, 수묵의 농담을 활용해 추상적 표현을 추구하거나, 문자를 활용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점에서는 파리동양미술학교의 화풍을 찾아볼 수 있다. 〈이끼꽃〉연작은 수묵채색화의 문법에 충실한 작품으로 평면에 구성한 꽃과 색채의 ‘컴포지션’이 현대적이면서도 식물을 대하는 동양적 자연관 역시 드러나 있다. 일상적 정물에 대한 담백한 시선과 수묵채색 표현을 즐겨하는 것은 이응노 사후 강의를 이끌어간 박인경 화백의 영향도 엿보인다.

이네스 이겔닉Inès Igelnick은 1979년 파리동양미술학교에 등록해 이응노를 사사했으며 11인의 작가중 불교 색채가 가장 짙은 개성있는 작가다. 이겔닉은 동양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정신문화에도 깊게 매료되어 선불교 수행도

병행했다. 동서양의 예술을 결합해 예술을 창작하기 시작했고 제네바의 선 센터에서도 활동하며 선과 서도의 정신을 탐구했다. 중봉의 획을 중시하여 일필휘지로 붓을 휘두르는 방식은 전후 일본에서 흥했던 전위서 그룹처럼 서예와 회화를 결합해 선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덧없는 Elusive, éphémère〉연작은 흘러지고 벌어지는 이미지를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먹이 가진 우연성, 즉흥성과도 맞아떨어진다.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의 움직임이 형상을 결정하는 먹은 이미 우연이 지배하는 덧없는 세계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겔닉이 「금강경」 중 일부 구절을 그림처럼 쓴 서예 작품은 ‘서예의 흔적을 간직한 추상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통 서예의 현대적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장 비유후Jean Villeroux는 1979년부터 10여년간 이응노를 사사했으며 먹과 종이 & 흑백의 상호작용, 여백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그 여백을 드러내는 필획을 탐구한다. 작가는 주로 판화 작업을 많이 했는데 판화를 찍을 때 잉크를 한 번 칠한 판화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인쇄해 잉크가 닳으면서 우연히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를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준다. 목재가 가진 질감, 톱질의 흔적 등을 종이 위에 드러내면서, 프린트한 횡수와 시간에 따라 희미하게 변해가는 먹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응용한 점이 매우 독창적이다. 판화를 통해 서예의 느낌을 내는 독창적인 작업은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몰두한 기법이다.

노엘 사메Noëlle Samé는 서예에 이끌려 파리동양미술학교에 등록했으며 박인경에게 배운 후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메는 어릴적 부터 만화에 관심이 많았고 캐릭터의 움직임과 자세에 관심이 많았다. 사메는 수묵으로 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일체의 색채 없이 최단수의 붓질로 인물의 특성을 명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작가의 특징이다. 이런 스타일은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고 먹의 농담만으로 형태를 그려내는 몰골법과 매우 닮아있다. 열은 담묵과 대담한 농묵이 함께

어우러져 매우 현대적인 ‘컴포지션’이 느껴진다. 소재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사람의 뒷모습에 주목한 점이다. 작가는 군중의 모습도 그렸지만 이번 전시에 소개된 3점은 모두 개인의 뒷모습을 담았다. 이응노가 춤추는 사람들을 통해 군중 속의 익명을 표현했듯이 사메는 개인의 뒷모습을 포착해 비밀스럽고 내밀한, 또 외부와 단절된 익명의 감정을 드러낸다.

시빌 프리델Sybille Friedel은 학교에서 조각과 데생을 배우고 1984년 이응노를 만나 서예를 배우며 동서양 예술의 조화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찾는데 몰두했다. 프리델은 스케일 크고 현장감 있는 군중 현장을 그린 〈이민자〉시리즈를 통해 군상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단테 시리즈’는 붓으로 글을 쓰듯 자유롭게 움직이는 붓질의 제스처로 역동적이면서도 서예적인 독특한 콤포지션을 보여준다. 군중을 그리는 탁월한 테크닉은 〈이민자〉시리즈에서 큰 스케일의 작품으로 나타나는데 몰골법으로 포착한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을 큰 화면에 움직이듯 구사한 〈이민자〉시리즈는 신체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력과 웅장한 구성을 소화해내는 작가의 드라마틱한 감성을 드러낸다. 작가는 또한 인간, 동물, 식물 세계 사이의 생명과 상호의존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환경보존 운동을 하고 있다. 수목, 나무, 밀랍, 금속 등 여러 재료를 시도해 창작하지만 그 재료들은 모두 서예의 본질과 교감하며 만난다. 필획이 몸의 움직임을 따르듯이 금속 작품에서 뿔어나온 선들 역시 획의 동세와 닮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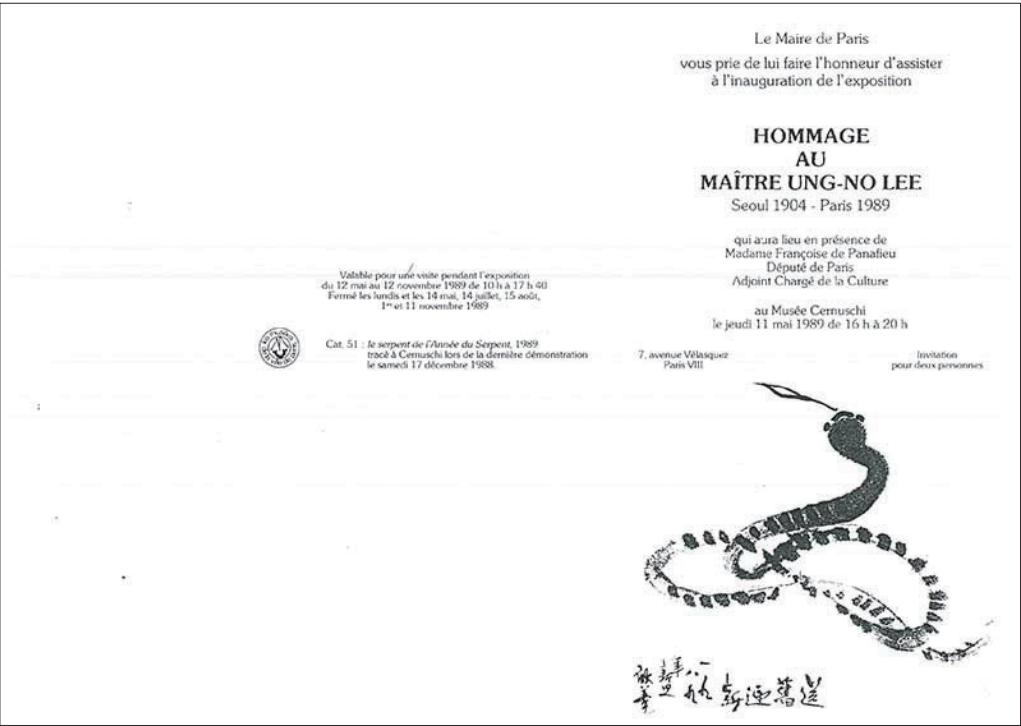
비르지니 카다르 트리바델Virginie Cadart Travadel은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INALCO에서 동양문화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녀의 작품은 서예가 회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을 제시한다. 〈씨앗〉시리즈는 서예를 쓰듯 그림을 그린 작품으로 문자가 읽히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의미가 제거된, 의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의 기호처럼 보인다. 이 기호들은 작가의 팔과 붓이 이루는 동세에 따라 매우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며 화면 전체를

역동적으로 구성한다. 서예라면 일정한 줄을 따라 써내려가지만 작가의 〈씨앗〉은 그것과 상관없이 화면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개된다. 붓의 제스처에서 오는 역동적 리듬은 그림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각적 운동감을 만들어낸다. 한자와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서도가 가진 회화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화가 석도石濤,1642-1707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씨앗’이라는 소재를 통해 생성소멸하는 자연에 대한 작가의 관조적 시선도 드러내고 있다.

문화교섭과 새로운 미술언어 1964년 파리동양미술학교가 설립된 이후 60년이 지났다. 여기서 공부한 프랑스 작가들은 저마다 이응노에게 배운 전통적 요소와 자신이 개척한 현대적 감성 사이에서 새로운 미술언어를 개척하고 있다. 이들의 예술이 가진 특성은 1960-80년대 문화적 접촉지대로서 파리동양미술학교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동일하다. 11인 작가들의 예술에서 동서양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교섭을 찾아볼 수 있듯이 그들을 배출한 파리동양미술학교 역시 다양한 문화와 개성이 충돌하고 교류하는 ‘앵테르페랑스’의 장이었다. 그것은 또한 1958년 이응노가 도불 후에 추구했던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언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파리동양미술학교는 전후 서양미술사에서 간과되었던 동양미술의 영향력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서양 모더니즘 미술은 100% 오리지널한 것인가? 전후 파리와 뉴욕에서 벌어진 추상미술의 독창성과 신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탈서구적 관점에서 이응노 교육 활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 교섭지대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교육자로서의 이응노는 예술가로서의 이응노 못지않게 새로운 미술 언어 탐구를 위해 동·서 융합을 실천했던 선구자였던 것이다.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1989년 세르누쉬 미술관에서 열린 이응노 추모전 초대장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미술학교'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ref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En 1964, le peintre Lee Ungno a ouvert des cours d'art oriental au Musée Cernuschi à Paris, où il a enseigné la peinture à l'encre et la calligraphie aux Français jusqu'à sa disparition. Il organisait régulièrement des démonstrations afin de faire connaître la beauté de la peinture à l'encre, la beauté de l'utilisation de ses outils(le pinceau, l'encre, le papier), mais aussi la beauté de la culture coréenne. Ces cours étaient les premiers d'arts orientaux à être ouverts non seulement en France, mais aussi en Europe. Dès 1949, Lee Ungno avait fondé l'école "Goam Hwasuk" à Séoul pour enseigner l'art, ce qui montre que la pédagogie était aussi importante pour lui que la création artistique. Outre les cours qu'il donnait au musée Cernuschi, Lee Ungno a également donné des cours d'art oriental dans son atelier, que ce soit boulevard Pasteur, rue Haxo dans le 19e arrondissement ou encore à Pré Saint-Gervais, chaque fois qu'il changeait de lieu de résidence.

Les activités pédagogiques de Lee Ungno ont effectivement été relativement moins mises en avant que son œuvre artistique. C'est pourquoi, en 2016, le Musée Lee Ungno a organisé l'exposition *École de Lee Ungno -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afin de mettre en lumière l'histoire de cette école, ses ateliers, ses méthodes d'enseignement, ses manuels et les expositions tests qui y avaient eu lieu. On estime qu'environ 3 000 élèves y sont passés. Mais qui étaient ces Français ayant appris du maître? Quel genre d'art produisent-ils aujourd'hui? L'exposition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est née de l'intérêt pour les activités actuelles des artistes formés par Lee Ungno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En observant leurs œuvres, l'exposition cherche à évaluer l'héritage du style franco-coréen qu'il a laissé derrière lui. Parmi ses anciens élèves figurent de grands noms comme le sculpteur Alain Kirili

(né en 1946) et la peintre Colette Brunschwig (née en 1927) ①, mais aussi de nombreux disciples qui continuent d'enseigner la peinture orientale dans toute la France, tout en poursuivant leur carrière artistique. Certains d'entre eux ont formé un groupe de calligraphie et de peinture à l'encre, appelé le "Muk-ki", avec lequel ils ont propagé avec ferveur les enseignements de Lee Ungno, allant jusqu'à organiser des expositions en Corée. L'exposition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présente une sélection d'œuvres de 11 élèves français de Lee Ungno, qui perpétuent son esprit artistique jusqu'à nos jours. À travers leurs créations, l'exposition vise à démontrer l'importance et l'influence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① Mael Bellec, "The Key Role of the 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in the Development of Lee Ungno's Work in Europe", documents of the exhibition Lee Ungno, a stranger at Home (Daejeon: Lee Ungno Museum, 2018), p. 4.

Négociation, collision, fusion

Il existe très peu d’informations concrètes sur les activités des artistes formés par Lee Ungno. On pourrait les qualifier collectivement comme “l’École de Lee Ungno”, mais il serait plus juste de les voir comme des artistes qui ont assimilé de manière personnelle et créative le style de leur maître. Tous les éléments formels que l’on retrouve dans l’art de Lee Ungno — l’utilisation des caractères chinois, la maîtrise du pinceau et de l’encre, la composition sur le papier, ainsi que l’usage des lettres comme signes picturaux — sont présents dans l’œuvre de ces 11 artistes français. À travers leurs œuvres, nous observons la continuité du style de Lee Ungno en France, tant de son vivant qu’après sa disparition, et la fusion harmonieuse entre les arts de l’Orient et de l’Occident.

L’enseignement dispensé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reflète la recherche de la fusion entre l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qui a toujours animé l’œuvre de Lee Ungno. Même dans ses œuvres modernes, la tradition de la calligraphie et de la peinture à l’encre était un élément fondamental de ses compositions abstraites, une influence que l’on retrouve également dans les créations de ses élèves. Le caractère fusionnel de l’art de Lee Ungno montre qu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était à l’intersection de l’est et de l’ouest, tout en s’inscrivant dans la continuité de l’art abstrait occidental. Ainsi, les œuvres de ces 11 élèves nous permettent de percevoir les traces de la rencontre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dans le milieu artistique parisien. Les historiens de l’art décrivent souvent les interférences, les rencontres et les conflits artistiques du milieu du XXe siècle à Paris, New York et Tokyo, entre l’Informel, le Gutai, la calligraphie d’avant-garde, et l’expressionnisme abstrait, en

prenant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omme affluent de cette grande tendance de l’histoire de l’art mondial, en la désignant souvent comme une “zone de contact culturel” entre l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② Comme l’a souligné Mme Park In-kyung, Lee Ungno ne s’est pas seulement rendu à Paris pour apprendre l’art moderne occidental, il a, dès la seconde moitié des années 50, cherché à déployer la contemporanéité de ses œuvres semi-abstraites, tout en cherchant à établir une “révolution des outils” et à faire connaître l’art oriental aux Français. Par conséquent, les cours de peinture orientale de Lee Ungno peuvent être vus comme une tentative artistique de chercher un nouveau langage artistique en relation avec la contemporanéité, au cœur de la capitale mondiale de l’art qu’est Paris.

② 정의정, 「동시대성의 매개체로서의 한자」, 『이응노 해외연구사』(대전: 이응노 연구소, 2022), p. 340. (Jeong Uijeong, “Le Hanja comme médiateur de la contemporanéité”, dans Lee Ungno: Recherches à l’étranger (Daejeon: Institut de recherche Lee Ungno, 2022), p. 340.)

③ Walter D. Mignolo, On Comparison: Who is comparing what and wh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p. 117.

④ 김현숙, 「에콜 드 이응노: 동양미술학교의 비전」, 『이응노, 동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대전: 이응노미술관, 2024), p.182.; 정의정, 위의 책, p. 340. (Kim Hyunsook, “L’École de Lee Ungno: la vision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ans Lee Ungno, le vent de l’est, le vent de l’ouest (Daejeon: Musée Lee Ungno, 2024), p. 182; Jeong Uijeong, ibid., p. 340.)

La pensée européocentriste, qui s’est formée au cours de l’expansion impérialiste de l’Europe du XIXe siècle, a engendré un cadre de réflexion basé sur la comparaison entre civilisations. ③ Dans ce contexte, bien que l’art oriental fût souvent relégué à une place marginale dans la culture européenne du XXe siècle, l’enseignement de Lee Ungno peut être vu comme une forme de résistance à cette domination culturelle, dans la mesure où il invitait les Français à participer activement à une nouvelle forme d’art contemporain. Bien que cela n’ait pas suffi à ébranler le purisme du modernisme occidental, Lee Ungno a néanmoins démontré que l’art oriental, souvent relégué au rang de culture secondaire selon les critères occidentaux, pouvait proposer une approche originale de la création abstraite, cœur de l’art occidental de l’époque. Cette démarche peut être interprétée à travers le prisme des conflits et des échanges culturels. En 1979 et 1981, Lee Ungno a organisé une série d’expositions intitulées *Interférences* dans sa galerie Koryo, regroupant des artistes formés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Il voyait en ces expositions et à travers le choix du terme “Interférences” le reflet de ce qu’il avait voulu que l’académie devienne ④: un lieu d’échanges, de confrontations, où l’art de l’Est et de l’Ouest se mêlait et se transformait mutuellement.

La possibilité d’une abstraction picturale dans la calligraphie a été soulevée dès le début du XXe siècle au Japon, et depuis lors, de nombreuses discussions sur la forme distinctive de la calligraphie ont eu lieu, notamment à travers l’avant-garde japonaise, entraînant des échanges avec les milieux de l’art abstrait en France et aux États-Unis. ⑤ Bien que l’art abstrait ait été principalement développé en Occident, les débats en Orient sur la picturalité et la modernité de la calligraphie révèlent

que l’art moderne avait aussi des racines autochtones. Le critique suisse Paul Seylaz a décrit les œuvres de Lee Ungno comme du “tachisme mêlé à de la calligraphie” ⑥, sans préciser si la calligraphie ou le tachisme prédominaient. Cependant, il est clair que dans les années 1950 et 1960, des artistes français comme Henri Michaux ont également exploré le tachisme avec l’encre, et que des peintres américains comme Mark Tobey ont noté l’importance de la calligraphie pour l’art moderne, en démontrant les possibilités d’abstraction qu’elle présentait. Seylaz a qualifié ce phénomène global de “rapport osmotique entre l’Est et l’Ouest”. ⑦ Cette interprétation nous invite à repenser la notion de modernité, non pas comme une forme unique imposée par l’Occident, mais comme une pluralité de modernités autochtones développées dans différentes cultures.

⑥ Paul Seylaz, Ungno Lee: Foules-Signes 1975–1984 (Switzerland: Club44, 1984)

⑦ Paul Seylaz, Ungno Lee (Switzerland: Musée des beaux-arts La Chaux-de-Fonds, 1963)

⑤ 구나연, 「1950년대 일본 전위서의 전개와 동시대 추상미술: ‘문자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응노의 문자추상: 문장, 문양, 패턴』(대전: 이응노미술관, 2021), p.221. (Gu Nayeon Le développement de la calligraphie d’avant-garde japonaise des années 1950 et l’art abstrait contemporain: autour du concept de “caractérisation”, in L’abstraction scripturale de Lee Ungno: phrases, motifs, patterns, (Daejeon: Musée Lee Ungno, 2021), p. 221.)

Les débats sur l’origine de l’abstraction chez Lee Ungno, qu’elle soit le fruit d’une inspiration autochtone ou d’influences extérieures, sont nombreux et reflètent une interrogation plus large sur l’acceptation unidirectionnelle du modernisme occidental. Pour comprendre cette question, il est nécessaire de dépasser le cadre de l’histoire de l’art occidental et d’adopter une perspective globale qui inclut l’Asie, l’Amérique du Sud et l’Afrique, afin d’appréhender les tendances de l’art contemporain à une échelle plus internationale.⑧ Les activités pédagogiques de Lee Ungno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peu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un exemple représentatif de cette dynamique. Les œuvres des 11 artistes français formés dans cet environnement culturel mettent en lumière les échanges et les confrontations culturels que l’Académie a incarnés.

⑧ “Entretien avec Alain Seban, Président du Centre Pompidou”, Modernités Plurielles de 1905 à 1970, page d’accueil du Centre Pompidou, consulté le 27 août 2024, <https://www.centrepompidou.fr/en/program/calendar/event/ccARK9>

Les élèves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Les disciples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que sont Martine et Jacki Perrin ont commencé leur parcours artistique dans la céramique avant de se consacrer au verre. Ils ont étudié la calligraphie avec Lee Ungno à l’Académie, où ils ont été captivés par son rythme, la signification de l’espace blanc et la fusion entre le corps et le pinceau. Leur exploration du souffle intérieur et des lignes les a amenés à intégrer la pensée orientale dans leurs œuvres. Lee Ungno les invitait régulièrement dans son atelier à Pré-Saint-Gervais, où ils ont collaboré sur des projets de peinture et de sculpture, développant ainsi une relation amicale. Une fois la maîtrise des traits de base de la calligraphie acquise, ils ont commencé à peindre sur de la céramique en utilisant des pinceaux et des oxydes, et ont intégré des lignes d’encre dans leurs œuvres de verre pour exprimer une sensibilité orientale. Entre 1975 et 1985, les Perrin ont étudié la calligraphie avec Lee Ungno et ont exposé leurs œuvres au sein de la Galerie Koryo, gérée par Lee Ungno et Park In-kyung. Ils ont aussi utilisé des motifs inspirés de la calligraphie dans leurs créations artisanales. Ils ont conçu des designs pour des textiles, des papiers peints, et des céramiques, un travail qui rappelle les collaborations de Lee Ungno avec la manufacture de Sèvres. Depuis 1988, le couple Perrin expérimente les possibilités artistiques du verre. Ils ont développé une technique appelée “Build-in-Glass”, qui leur permet de créer des volumes, des formes et des textures en enlevant les blocs et en gravant directement le verre. Chaque pièce révèle des couches distinctes, évoquant des strates géologiques ou archéologiques, tout en harmonisant texture, couleur, lumière et forme dans une esthétique élégante.

Christine Dabadie-Fabreguettes a débuté son apprentissage de la peinture orientale auprès de Lee Ungno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en 1971. Depuis 1985, elle est à son tour passée à l’enseignement et a même donné des cours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à Avignon. Spécialisée dans la peinture lettrée et la calligraphie, elle cherche à intégrer l’esprit de la peinture à l’encre orientale à l’art contemporain. Parmi ses œuvres les plus remarquables figure une impressionnante représentation d’un vieil arbre, où la force expressive de l’encre s’épanouit dans une dimension quasi chamanique. L’arbre, symbole des forces naturelles, rappelle le “seonangdang” (sanctuaire dédié aux esprits) de la culture populaire coréenne, incarnant un pouvoir mystique. La majesté de cette figure laisse paraître l’influence de la calligraphie, perceptible dans les traits de pinceau et l’harmonie qui s’en dégage. Un autre projet phare de l’artiste est une série de calligrammes inspirée du poème *Le Silence de l’Amour* de Han Yongun. Ce travail traduit son profond intérêt pour la culture coréenne, où elle varie les formes et les caractères pour exprimer visuellement la résonance poétique des choses. Par son approche, alternant écriture serrée et larges coups de pinceau, elle crée des images où la calligraphie devient un véritable élément pictural, témoignant d’une maîtrise remarquable de l’art de faire parler les lettres.

Claire Kito a étudié les arts plastiques à l’université avant de se former à la calligraphie et à la peinture à l’encre de Chine avec Lee Ungno au Musée Cernuschi en 1986. Depuis, elle s’est principalement consacrée à la création d’œuvres à l’encre, exposant dans de nombreuses galeries en France et à l’étranger. Claire Kito manifeste un profond intérêt pour la culture orientale en intégrant

dans ses œuvres des poèmes chinois, comme ceux de Du Fu, ou en créant des motifs picturaux inspirés des caractères chinois. Sa série *Mont d’encre* montre des caractères empilés en forme de montagne, révélant les formes caractéristiques de l’écriture chinoise. Une autre série notable de Claire Kito est la série “Foule”, où elle superpose des silhouettes humaines avec des lignes épaisses, illustrant son intérêt pour la représentation du corps humain. En maîtrisant la spontanéité et le hasard du pinceau, Claire Kito démontre non seulement une grande habileté technique, mais aussi son évidente appartenance à l’art de Lee Ungno. À travers ses œuvres, Claire Kito explore la signification de l’humanité dans une société moderne dominée par l’illusion et la technologie. Dans une époque où la question de l’humanité semble s’effacer, Claire Kito utilise ses figures pour affirmer la valeur de l’existence humaine.

Élisabeth Burgun, d’abord active à Nantes, a étudié les arts décoratifs à Paris avant d’apprendre la calligraphie et la peinture à l’encre de Chine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Elle utilise des techniques de calligraphie pour créer des peintures modernes, intégrant des poèmes de poètes français comme Baudelaire, Hugo et Prévert de manière picturale pour élaborer des calligrammes. Son intérêt pour les caractères dépasse la simple utilisation des caractères chinois et de l’alphabet. Dans ses œuvres récentes, elle explore le thème du magma, en représentant la chaleur et la texture d’une éruption volcanique avec une grande vivacité grâce à la peinture à l’encre en noir et blanc et en couleurs. Ses compositions abstraites basées sur les caractères rappellent l’héritage de son maître Lee Ungno, mais elle y apporte une touche personnelle en utilisant une palette de couleurs plus variée et en développant

une sensibilité typiquement française pour la forme des caractères, offrant une perspective originale sur l’abstraction de leur forme. Elle exploite également le dynamisme des gestes d’écriture pour représenter des textures telles que les flammes, la fumée, la surface des rochers et l’écorce des arbres, montrant un grand soin du détail. Sa série principale, *Les Rochers*, est un exemple remarquable de paysage où l’utilisation des caractères et des ombres à l’encre évoque habilement des rochers, tout en mêlant tradition de la peinture à l’encre et expérimentation moderne. Fidèle à la tradition orientale qui consiste à inscrire des poèmes sur les peintures, Claire Kito intègre des poèmes bouddhistes à ses œuvres, offrant ainsi une dimension méditative qui invite à contempler la nature à travers une perspective bouddhiste.

Florence Schrobiltgen est diplômée de l’École des Beaux-Arts de Bordeaux et a étudié le dessin et les arts décoratifs à Paris, où elle a exercé en tant que designer textile pendant plus de 20 ans. En 1987, elle rencontre son mentor Lee Ungno et apprend la calligraphie et la peinture à l’encre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tout en enseignant à Bordeaux. L’artiste utilise habilement l’encre et les pigments pour explorer une variété de styles qui s’éloignent des traditions de la peinture à l’encre, reflétant son expérience en arts décoratifs et en design dans ses œuvres. Son approche décorative et riche en couleurs, qui combine encre, pigments, fils et sérigraphie, révèle une personnalité artistique distincte. Dans ses œuvres représentant des hirondelles et des lotus, les couleurs vives évoquent les motifs traditionnels de la peinture populaire coréenne.

Françoise George Ploteau a commencé à suivre des cours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en 1987, tout en se formant à la restauration d’œuvres d’art dans un atelier de conservation à Paris. Son œuvre reste fidèle aux principes de la peinture orientale, s’inspirant de l’observation de la nature et explorant les effets de l’encre pour capturer les impressions ressenties face à celle-ci. Conformément aux enseignements de Lee Ungno, qui soulignait l’importance d’une représentation fidèle de la nature, Ploteau s’attache à transposer fidèlement les objets et la nature sur la toile. Dans son usage du point pour créer des effets picturaux, dans son exploitation des nuances d’encre pour l’expression abstraite ou encore dans son incorporation de caractères, on retrouve clairement l’influence stylistique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La série *Fleur de Lichen* témoigne de son respect pour les techniques traditionnelles de l’encre colorée, tout en révélant une perspective moderne et une vision orientale de la nature. Son intérêt pour les natures mortes simples et l’utilisation de couleurs rappellent également l’influence de l’artiste Park In-kyung, qui a pris la relève après la disparition de Lee Ungno.

Inès Igelnick s’est inscrite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en 1979 pour étudier sous la direction de Lee Ungno. Parmi les onze artistes, son œuvre est celle qui porte le plus fortement l’empreinte de la pensée bouddhiste. Elle s’est non seulement intéressée à la peinture orientale, mais s’est également passionnée pour les pratiques spirituelles comme le bouddhisme zen, qu’elle a cherché à incorporer dans son processus créatif. Fascinée par la fusion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elle a travaillé au centre zen de Genève, explorant la philosophie zen et l’esprit de la calligraphie. Ses œuvres ont été influencées par la technique

du trait central appelé “jungbong”, qui consiste à tenir le pinceau pour obtenir un équilibre parfait et permettre un tracé fluide du pinceau en un seul mouvement. On retrouve ainsi dans son travail des traces de l’avant-garde japonaise d’après-guerre qui combinait calligraphie et peinture pour exprimer les enseignements zen. Sa série *Elusive*(éphémère) incarne une vision bouddhiste du monde à travers des images qui semblent éphémères, presque en train de disparaître, mais qui en cela s’accordent parfaitement avec la spontanéité et l’imprévisibilité de l’encre de Chine. Cette encre, en imprégnant le papier et en se déplaçant aléatoirement, crée des formes décidées par le hasard, reflétant l’idée bouddhiste d’un monde transitoire et impermanent. Parmi ses œuvres, on trouve aussi des calligraphies inspirées du Sutra du Diamant, dans lesquelles les versets sacrés prennent la forme d’abstractions visuelles, montrant l’effort de l’artiste pour moderniser la tradition calligraphique tout en préservant ses traces.

Jean Villeroux a étudié sous la direction de Lee Ungno pendant une dizaine d’années à partir de 1979. Il explore l’interaction entre l’encre et le papier, le contraste entre le noir et le blanc, ainsi que les multiples possibilités créées par l’espace vide et les traits qui le soulignent. Villeroux s’est principalement consacré à la gravure, et l’un de ses techniques consiste à utiliser des plaques de bois encrées qu’il appose sur la toile, laissant l’encre s’estomper progressivement, produisant ainsi des effets visuels aléatoires qui ressemblent à de véritables images. En mettant en avant la texture du bois et les traces du sciage, il exploite visuellement les nuances de l’encre, qui s’effacent au fil du temps et des impressions. Cette approche unique, qui évoque la calligraphie à travers la gravure, témoigne de l’engagement artistique profond de l’artiste.

Noëlle Samé, attirée par la calligraphie, s’inscrit à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où elle étudie l’encre et la calligraphie auprès de Park In-kyung. Elle travaille actuellement dans le sud-est de la France. Dès son enfance, elle se passionne pour la bande dessinée, notamment pour les mouvements et les postures des personnages. Cela se reflète encore aujourd’hui dans ses œuvres, où elle se spécialise dans le portrait, capturant les traits essentiels des sujets en quelques coups de pinceau minimalistes, sans utiliser de couleurs. Son style se rapproche de la technique du “mogu”, où les formes sont créées sans contours, seulement avec les nuances de l’encre. Elle combine des tons légers et des traits d’encre plus audacieux, créant une composition résolument moderne. Une particularité de son travail réside dans sa préférence pour la représentation des personnages de dos. Bien qu’elle ait également peint des foules, les trois œuvres présentées lors de cette exposition se concentrent sur des figures de dos. À l’instar de Lee Ungno, qui exprimait l’anonymat à travers des foules dansantes, Samé capte la posture individuelle pour montre une dimension secrète, intime et isolée, où les émotions anonymes se révèlent subtilement.

Sybillle Friedel a appris la sculpture et le dessin à l’école et a rencontré Lee Ungno en 1984, ce qui a marqué le début de son apprentissage de la calligraphie. Elle s’est alors consacrée à la recherche de son propre langage plastique, en harmonisant l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Friedel se distingue par des œuvres de grande envergure qui capturent la vitalité des foules, comme en témoigne sa série *Les Migrants*. Ces œuvres dépeignent de manière vivante des scènes de groupes humains, en capturant leur mouvement et leurs expressions avec un réalisme saisissant. Sa série intitulée *Dante*, mêle des gestes

dynamiques à des coups de pinceau rappelant l’écriture calligraphique, créant ainsi des compositions uniques et vibrantes, à la fois picturales et calligraphiques. La maîtrise de Friedel pour la représentation des foules transparait pleinement dans *Les Migrants*, une série de grandes œuvres où elle capte les mouvements variés des corps humains en utilisant la technique du mogu. Ces compositions, presque animées, révèlent son sens aigu de l’observation et son goût pour l’épique, témoignant d’une sensibilité dramatique. En parallèle, l’artiste s’intéresse à la relation entre les mondes humain, animal et végétal, et s’engage dans la préservation de la biodiversité à travers des initiatives écologiques. Friedel utilise une variété de matériaux pour ses créations, comme l’encre de Chine, le bois, la cire et le métal, et chacun de ces supports dialogue en profondeur avec l’essence même de la calligraphie. De la même manière que ses traits de pinceau s’efforcent de suivre le mouvement des corps, les lignes dans ses œuvres métalliques évoquent la dynamique des traits de la calligraphie.

Virginie Cadart Travadel a étudié la culture orientale à l’Université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INALCO). Ses œuvres apportent un éclairage tout à fait intéressant à l’éternelle question de la considération de la calligraphie comme forme d’art pictural. Sa série *Semences* présente des œuvres dans lesquelles la peinture est réalisée comme de la calligraphie. Bien que certains caractères puissent être lisibles, la majorité des œuvres apparaissent comme des symboles dépourvus de signification spécifique, totalement libérés de leur sens. Ces symboles montrent des mouvements très dynamiques, dictés par la gestuelle de ses bras et de son pinceau, apportant de la vie à l’ensemble de la composition. Contrairement à la calligraphie

traditionnelle, qui suit des lignes définies, les œuvres de Semences se déplacent librement sur toute la surface de la toile. Le rythme dynamique des gestes du pinceau insuffle une vivacité au tableau et crée une impression de mouvement visuel. En mettant en avant l’aspect pictural de la calligraphie et en s’inspirant des poèmes du peintre chinois Shitao(1642-1707), Cadart Travadel explore aussi une vision contemplative de la nature à travers le thème des semences, entre naissance et disparition.

Depuis la création de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en 1964, 60 ans se sont écoulés. Les artistes français qui y ont été formés ont chacun développé un nouveau langage artistique, naviguant entre les éléments traditionnels appris auprès de Lee Ungno et les sensibilités modernes qu’ils ont explorées eux-mêmes. Les caractéristiques de leur art reflètent les préoccupations de l’Académie, qui a agi comme un carrefour culturel majeur dans les années 1960–1980. Tout comme les œuvres des onze artistes montrent la rencontre entre Orient et Occident et entre tradition et modernité,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était également un lieu où diverses cultures et individualités se rencontraient et échangeaient, incarnant le concept “d’Interférences”. C’était aussi un laboratoire pour le nouveau langage artistique que Lee Ungno cherchait à explorer après son arrivée à Paris en 1958. Plus encore, l’Académie a invité à reconsidérer l’impact de l’art oriental, souvent négligé dans l’histoire de l’art occidental post-guerre. La question se pose: l’art moderne occidental est-il vraiment le fruit d’une pure et totale originalité ? En mettant en doute l’originalité et le mythe de l’abstraction à Paris et à New York après-guerre, nous pouvons réévaluer l’activité de Lee Ungno sous un angle post-occidental. En tant

푸른 눈의 수목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qu’éducateur à l’avant-garde des zones de contact culturel, Lee Ungno était un pionnier dans la fusion des influences pour explorer de nouveaux langages artistiques, tout comme il l’était en tant qu’artiste.

동서 예술의 교차로 '파리동양미술학교'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carrefour des arts orientaux et occidentaux



푸른 눈의 수묵

L'encre de Chine

Aux Yeux Bleus

이응노와 프랑스 제자들
Lee Ungno et Ses
Disciples Français

2024. 10. 01. - 11. 17.
이응노미술관
Musée Lee Ungno

발행인

이갑재

발행처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전시

총괄 이갑재

기획 김상호

학예 광영진, 김은경

홍보 김현지, 김건희, 이해연

행정 도성중, 김윤규, 임대중, 김민경

도록

디자인 · 인쇄 · 제책 백색공간

도슨트

민현숙, 백영봉, 박소영, 변지영,

복인희, 손 정, 이경민, 조진연, 한영숙

Responsable de Publication

Lee Kabjae

Publication

Fondation Daejeon Goam Art & Culture,
Musée Lee Ungno

Exposition

Supervision Lee Kabjae

Commissariat Kim Sangho

Équipe de conservateurs Kwak Youngjin,
Kim Eunkyung

Administration Do Sungjung, Kim Yunkoo,
Lim Daejung, Kim Minkyung

Service des publics Kim Hyunji, Kim Gunhee,
Lee Hyeyeon

Catalogue

Graphisme 100Space

이응노미술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

Musée Lee Ungno Dunsan-daero 157,
Seo-gu, Daejeon, Korea